

광 고

원양산업

제 1137 호
(2021년 9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정일산업, 국내 최초 크릴 어업 MSC 인증 / 4
- 늘어난 체중·근손실 관리에 명태 / 5
- 티앤에스산업, 하와이 인근 침몰 위기 요트 승선자 구조 / 6
- 해외수산협력센터, PNG·태평양 도서국 투자 설명회 개최 / 7
- 원양채낚기 봉수망 검용 어선 건조 / 7
- 2022년 어기 한-투발루 참치선망 입어협상 / 8
- 원양선원 해외모지 이장사업 홍보 / 8
- 협회 주요 업무 추진 동향 / 9
- 요리 만들기 / 19
(참치마요 햄무스비)
-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20
- '21년 8월 보고 내용 / 20
-  해외수산정보
- 참치어업 동향
- 참다랑어·황다랑어·날개다랑어, 멸종위기 등급 개선 / 24
- IATTC 보존 조치 논의, 또다시 합의 실패 / 24
- 7월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어획량 감소 / 25
- 방콕 냉동 가다랑어 가격 8% 하락 / 25
- 방콕 황다랑어, 낮은 어획량에도 공급 안정적 / 26
- 세이셸 가다랑어, 톤당 1,150 유로 / 26
- 2020년 세계 참치 어획량 6% 감소 / 27
- 2020년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어획 9% 감소 / 27
- 日 재무성, 1~7월 참치 수입 통계 발표 / 28
- 2021년 상반기 EU 참치캔 수입 통계 발표 / 29
- EU 2021년 상반기 참치 로인 수입통계 발표 / 29
- 美 2021년 상반기 참치캔 수입량 22% 감소 / 30
- 美 2021년 상반기 날개다랑어 로인 수입 통계 발표 / 30
- 운임료 상승, 끝이 보이지 않는다. / 31
- ISSF, RFMO에 지원선 모니터링 필요성 제기 / 31
- 필리핀 중서부태평양 참치 선망선 증가 / 32
- 피지 정부, 어선 업그레이드 보조금 승인 / 32
- 대만 FCF, PNA 전 영역 대상 MSC 인증 추진 / 33
- Tri Marine, FAD 어업 MSC 인증 취득 근접 / 33
- 日 이토추사, MSC 인증 추진 / 34
- 식물성 대체 참치 시장, 계속 성장할 전망 / 34
- 日 도요스시장 8월 냉동 눈다랑어 가격 발표 / 35
- 마셜제도, 참치 선원 백신 접종에 박차 / 35
- 네덜란드 P&P, 참치캔 가공 분야 진출 추진 / 36
- 타이 유니온, 2022년 대규모 설비투자 계획 / 36

Contents

- 日 연구자, 브라질에서 참다랑어 사라진 원인 분석 / 37
 - 참다랑어, 50년 만에 덴마크 해역 돌아와 / 37
 - 日 기업, 참치로 만든 칩 제품 출시 / 38
 - 日 기업, 참치 토로 가공식품 출시 / 38
 - 스페인 선단, 인도양 황다랑어 쿼터 공유 허가 받아 / 39
 - 파푸아뉴기니 Frabelle 가공 공장 화재 / 39
- 오징어어업 동향
- 포클랜드 집행위, ITQ B 의회 상정 동의 / 40
 - 아르헨티나 6월 수산물 수출 통계 발표 / 40
- 명태어업 동향
- 러시아 8월 30일~9월 5일 어가 약세 유지 / 41
 - 러시아 수산청, 명태 출고 촉진 회의 개최 / 41
 - 日 게맛살 등 연육 시장 규모, 6% 성장 / 42
 - 러시아 PCA, 명태 어업 MSC 인증 취득 / 42
 - 국제 연육 시장, 여전히 공급난 겪는 중 / 43
 - 알래스카 명태 PBO 생산량, 40% 감소 / 43
 - 알래스카 명태 공급, '존스법'으로 인해 위기 / 44
 - RFC, 러시아 국내 명태 공급 새 계약 체결 / 44
 - 日 어묵 기업 출시한 어묵 단백질 바 주목 / 45
 - 日 기업, 당분 절반 줄인 고단백 어묵·게맛살 출시 / 45
- 콩치어업 동향
- 日 콩치 어획, 지난해보다 개선됐으나 여전히 적은 편 / 46
 - 러시아, 콩치 어업 단속규칙 다시 강화 / 46
- 각국 수산 동향
- 오메가3 수치 높으면 기대수명 5년 증가 / 47
 - 인도양, 해적행위 고위험시대 축소 / 47
 - 러시아, 남극 크릴새우 어업 계획 추진 / 48
 - 트롤 전개판 기술 진화 / 48
 - Young's Seafood 어린이 타겟 제품 출시 / 49
 - 日 마루하니치로, 세포배양 어육 생산 추진 / 49
 - 러시아 과학연구기관, 정어라고등어 어장 형성 예측 / 50
 - 노르웨이 고등어, 역대 최대 주간 어획량 기록 / 50
 - Aker Biomarine "크릴 어획량 1/3 감소" / 51
 - 아르헨티나 4개社, 이빨고기 MSC 인증 추진 / 51
- 쉬어가는 난 (시)
- 바다2 <정지용> / 52
- 국내 수산 뉴스
- 경쟁력 있는 원양 종건·강소기업 키운다 / 53
 - 오징어·고등어·갈치 등 대중성어종 최대 반값에 판매 / 54
 -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 선박복원성 집중점검 실시 / 54
 - 2022년 정부예산안에 해양수산분야 6조 3,365억 원 / 55
 - 추석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 56
 - 「한국수산어촌공단법」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56

정일산업, 국내 최초 크릴 어업 MSC 인증 남빙양 수산자원 지속관리 능력 인정받아

정일산업(주)(대표 박철웅)이 지난 8월 27일 국내 최초로 남빙양(남극해) 크릴 어업에 대한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 해양관리협의회) 인증을 획득했다.

크릴 어업에 대한 MSC 인증은 국내 최초이며, 세계적으로는 정일산업 외 단 2개 기업만이 보유하고 있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남빙양 수산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원양 기업이 남빙양 수산자원 지속관리와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해 MSC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MSC란 남획, 불법어획, 해양환경 파괴 등 지속가능한 어업을 저해하는 어업이 아님을 증명하는 국제 민간인증 프로그램이다.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테스코, 월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 소매유통 기업들이 앞장서서 MSC 인증 제품 판매를 정책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지속가능 인증 상품 인지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글로브스캔(GlobeScan)이 전 세계 23개국 5,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2020년)에 따르면 49%의 수산물 소비자가 MSC 로고를 인지했고 76%가 인증을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MSC는 신뢰도가 높은 만큼 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MSC 인증을 위해 심사를 받는 기업은 MSC 표준 3대 원칙(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생태계 영향, 효과적인 관리)에 근거한 28개의 세부 지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일산업은 지난 2019년부터 MSC 어업인증을 준비해 왔으며, 2년여 간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후 인증을 획득했다.

크릴은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새우와 생김새가 닮아 크릴새우로 불리기도 한다. 크릴은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된 크릴오일 영양 보조제의 원료와 낚시 미끼 등으로 사용된다. 현재 우리나라 남빙양 크릴 조업 트롤선은 3척으로 이 중 2척이 정일산업 소속이다.

한편, 우리나라 원양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미래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기 위해 MSC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동원산업은 중서부태평양 참치 어업 인증을 이미 획득했고, 사조그룹과 신라교역은 참치 어업에 대한 MSC 인증을 추진 중이다.

우리 협회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언론, 해수부 등에 적극 알렸으며 SNS에도 게시했다.

그 결과 부산일보(9.1, 14면), 수산신문(9.6, 1면), 한국수산경제(9.6, 2면), 수산인신문(9.6, 6면), 어민신문(9.6, 6면), 한국수산신문(9.6, 6면), 한국농어민신문(9.7, 10면)을 비롯해 위클리서울, 내외일보 등 다양한 언론사에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다.

우리 협회 최경삼 전무는 보도자료를 통해 『준법조업은 업계 스스로 반드시 지켜야할 시대적 사명이자 역할이란 점을 깊이 인식하고 조업 질서의 투명성 확보에 진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MSC 인증으로 이어지고 있어 기쁘고 우리나라 수산물이 국내 및 세계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늘어난 체중·근손실 관리에 명태

운동 없이 꾸준한 섭취만으로 다이어트·근육량 증가 효과
일본, 게맛살을 중심으로 명태 연육 제품 판매 증가

최근 코로나로 ‘확찐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저지방 고단백 식품 명태의 다이어트·근육량 증가 효과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일본의 임상시험에서 입증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일본의 연구 결과 꾸준한 명태 단백질 섭취가 20대 여성의 다이어트, 고강도 운동을 병행한 10대 근육 증강, 노인성 근력 감퇴 방지 등 다양한 목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일본의 명태 단백질 연구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일본수산(주), 도쿄대학교, 에히메대학교 등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9년에 실시한 다양한 연구결과 명태의 단백질 성분이 계란 이상으로 대두나 우유보다 효율성이 높으며 60세 이상 여성의 경우 명태를 섭취하는 것만으로 근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0대, 20대, 60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일본수산(주) 식품기능과학연구소와 일본 류코쿠대학 합동 연구팀은 21~22세 성인 여성 20명에게 격렬한 운동 없이 통상적인 생활로 3개월간 명태 어육(명태 단백질 4.5g 함유)을 매일 섭취하도록 했다. 시험 결과, 10주 후에 기초대사량이 80kcal 증가했다. 기초대사량 80kcal는 20분간 걷기 운동을 할 때 소모되는 칼로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별한 운동 없이 명태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기만 해도 일정 수준의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

10대를 대상으로 근육 증가 효과를 입증한 연구도 발표되었다. 일본수산(주) 식품기능과학연구소와 일본 스키야마조가쿠엔대학 합동 연구팀은 아이치현에 위치한 고등학교 축구부원 36명을 대상으로 임상시

험을 진행, 아침과 점심 사이에 명태 어육(명태 단백질 4.5g 함유)을 섭취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평소의 운동과 일상생활을 유지하게 했다. 시험 시작 4주 전, 당일, 4주차, 8주차 각각 1회씩 시험 대상자의 근육량을 측정해 사지골격근량지수(SMI)를 측정한 결과, 시험 4주차~8주차에 특히 높은 변화량을 기록해, 섭취 4주 후부터 의미 있는 근육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명태 단백질과 우유 단백질을 비교한 것이 눈에 띄었다. 일본수산(주)과 도쿠시마 대학 첨단효소화학연구소 당뇨병임상·연구개발센터는 건강한 65세 이상 여성 92명을 명태 단백질 섭취군(46명)과 유청 단백질(우유 속 함유된 단백질) 섭취군(46명)의 2그룹으로 나눠, 1회당 각 소재 단백질 4.5g이 함유된 시험식을 6개월간 섭취하게 했다. 연구 결과, 명태 단백질 섭취군은 섭취 개시 12주 후와 24주 후, 유청 단백질 섭취군에 비해 사지의 골격근량과 무릎 신전 근력(펴는 근력)이 더 크게 증가했다.

우리 협회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적극 알렸으며 SNS에도 게시했다.

그 결과 리얼푸드(9.9), 내외일보(9.9), 우먼스토리(9.10), 수산신문(9.13, 4면), 수산인신문(9.13, 6면) 등에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다.

우리 협회 최경삼 전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에서는 명태 단백질의 근육 증가 효과가 TV 등에서 소개되며 2018년 이후 게맛살을 중심으로 명태 연육 제품 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운동 또는 신체적 활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명태와 명태 제품의 섭취는 근력을 키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티앤에스산업, 하와이 인근 침몰 위기 요트 승선자 구조 호주 구조조정본부, 자국민 구조한 블루오션호에 감사 인사

우리 원양어선이 선체 파손으로 침몰 위기에 처한 호주 국적 요트 승선자 2명을 구조했다. 호주 해사안 전청(AMSA)은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공동 구조작전을 펼친 블루오션호와 호놀룰루 합동구조조정본부(JRCC Honolulu, 이하 '구조본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티앤에스산업(주)(옛 선우실업) 이빨고기(메로) 원양 저연승어선 블루오션호(835톤)는 지난 8월 14일 오전 6시(협정세계시) 남서대서양 조업을 위해 하와이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중 구조본부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고 즉시 뱃머리를 돌렸다. 남동방향 95마일 지점에서 기상 악화로 인한 선체 파손으로 침몰 위기에 처해있는 요트에 승선 중인 2명을 구조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블루오션호는 당일 오후 3시(협정세계시) 구조본부에서 띄운 비행기가 파악한 위치에서 호주 국적 2명(부부)을 안전하게 구조해 승선시켰다.

구조본부와 호주 당국은 구조자를 인근 태평양 도서국에 하선시키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인한 입항 제한 및 구조자 송환 항공편 부재로 블루오션호에 칠레, 폰타 아레나스항까지 동행을 요청했다. 블루오션호 선원들은 선실 부족 등 불편함이 있었지만 흔쾌히 요청을 받아들였다.

계속되는 항해 중 8월 22일 구조본부가 하와이행 유조선에 구조자를 인계하도록 요청해왔다. 블루오션호는 유조선과 상봉해 구조자를 무사히 인계했다.

한편, 우리 원양어선은 과거에도 적극적으로 위험에 처한 선원을 구조한 바 있다. 신라교역(주) 참치선망선 신라쥬피터호는 2017년 남태평양 토켈라우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 소속 헬기가 선박화재로 스티로폼 뗏목에 의지해 표류 중이던 인도네시아 선원 10명과

중국인 선원 1명 등 총 11명을 발견해 구조했다. 또한, 사조산업(주) 참치연승선 오양 371호는 2016년 키리바시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 엔진 고장으로 표류 중인 키리바시 낚시어선 선원 2명을 구조했다.

우리 협회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적극 알렸으며 SNS에도 게시했다.

그 결과 8월 30일자 수산신문 5면, 수산인신문 3면, 한국수산경제 2면, 한국수산신문 4면에 실렸다.



해외수산협력센터, PNG·태평양 도서국 투자 설명회 개최

국내외 저명 연사 강의, 진출 정보 및 네트워킹 지원

우리 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는 9월 30일(목) 광화문 소재 HJ비즈니스센터에서 파푸아뉴기니(PNG) 및 태평양 도서국 투자 정보 제공을 위해 ‘제7회 해외수산투자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외수산협력센터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1개 국가를 선정, 해당 국가와 관련된 국내외 연사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당 지역 투자 희망기업, 원양산업 관계자에게 유익한 투자 환경, 투자관련 법령, 제도 등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파푸아뉴기니 및 태평양 도서국은 우리나라 참치 어선의 주 어장이다.

이를 위해 나우루협정당사국(PNA office) 커머셜 매니저 Maurice Brownjohn이 ‘PNA의 투자와 개발기회’를 소개 할 예정이며, 호주 국립 대학교 Graeme smith 교수가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글로벌 회계법인 KPMG PNG의

Wayne Osterberg가 ‘PNG 어업개요 및 진출 가이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법인 태평양 백용렬 변호사가 ‘해외 투자 진출 시 법률리스크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사)적도해양포럼 권문상 박사가 ‘신국제해양질서와 남태평양 도서국 진출 전략’에 대해서도 현장 강의를 실시하며, 기업별 맞춤형 1:1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본 설명회는 방역지침에 따라 Zoom을 통해 라이브로 중계된다. 참석 신청은 해외수산협력센터(044-868-7837, wy.lee@kofci.org)로 하면 되고, 특별히 관심 있는 업계 관계자는 현장 참석 의사를 알리면 현장 참석도 가능하다.

권현욱 해외수산협력센터 센터장은 “이번 설명회가 파푸아뉴기니 신규 사업을 모색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외진출 희망기업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우리 원양산업이 경쟁국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양채낚기 봉수망 겸용 어선 건조

(주)동원해사랑, ‘805통영호’ 진수식

1,300톤 규모의 원양채낚기 봉수망 겸용 어선이 30여년만에 국내에서 건조됐다.

(주)동원개발의 계열회사인 (주)동원해사랑은 지난달 27일 원양 채낚기 봉수망 겸용 어선인 ‘805통영호’ 진수 명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805통영호’는 전장 72.85m, 선폭 11m, 국제톤수 1,300톤 규모로, 승선 인원은 43명이다. 이 선

박은 부산 소재 중형선박 제조업체인 (주)강남에서 건조됐으며, 봉수망 겸용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나(음파탐지기) 등 최첨단 장비를 장착했다.

동원해사랑 측은 이번 선박 진수로 까다로운 포클랜드 해역 입어 조건을 반영하고, 현대적 어로 설비를 장착해 어획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 어기 한-투발루 참치선망 입어협상 조업일수, 일일 조업 가격 등 입어조건 합의

2022년 어기 한-투발루 참치선망 입어 협상이 지난 8월 31일 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이번 협상에는 동원산업 박상진 상무(수석대표), 사조산업 이경영 차장, 신라교역 박정국 차장과 함께 우리 협회 신현애 상무 등이 참석했다. 투발루 측에서는 Falasese Tupau 수산부 차관 Sam Finikaso 수산청장 등 7명이 참석했다.

회의 기간 동안 양국 대표단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투발루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참치선망선들의 입어 조건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허가척수, 조업일수, 일일 조업 가격, 입어료, 전배 조건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그 외에 우리 측은 우리 선단이 현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푸나푸티항 입항 전제가 불가능해 해상(지정수역) 전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입항 전제 또는 라군(Lagoon) 지역 전제 허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투발루에서는 국회도 기본적으로 항구 개방에 동의했으나 피지·키리바시 등 인근 연안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개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푸나푸티항 개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전제 시 어선과 운반선 선원 간 접촉을 피하는 방안 등 코로나 전파 방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협회와 투발루 수산청은 회의 결과를 반영해 추후 최종 약정 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양선원 해외묘지 이장사업 홍보 부산 일간지, 라디오, 수산전문지 등 광고

우리 협회는 9월 1일부터 부산일보, 국제신문, CBS 라디오, 수산전문지 등을 통해 원양선원 해외묘지 이장지원 사업 홍보를 시작했다.

라디오 광고의 경우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CBS '강석우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프로그램 1부와 2부 사이(9시 58분)에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된다.

원양선원 해외묘지 이장지원 사업은 60, 70년대 우리나라 산업근대화의 초석을 다지다 해외에서

순직한 원양선원들의 유골을 유족이 국내로 이장할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외에서 순직한 원양선원들의 공로를 높이 사 유해를 국내로 송환하는 사업을 우리 협회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 협회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동 사업으로 라스팔마스, 사모아 등 4개 지역에서 총 31기의 유골을 국내로 송환해 유가족에게 인도했다.

협회 주요 업무 추진 동향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 '21년도 협회비 부과추진
 - '21. 6월분 업종별회비, '21. 7월분 업종별회비, '21. 4차분 기본운영회비
- '21. 수산물이력제 소비자 만족도조사 제안서 심사 참석
 - 일자/장소 : '21.8.10 14:00 / 한국수산물회 회의실
 - 참석자 : 경영지원본부장
 - 내용 : 2021년 수산물 이력제 소비자 만족도 조사 위탁사업 제안서 심사
- 선우실업 회사명 및 주소(본사) 변경 안내 (전 회원사)
 - 회사명 : 선우실업(주) → 티앤에스산업(주)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 1317호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4, 6층 (서초동)
- '21. 수익사업 중간 결산 세무조정 업무추진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부속 명세서 작성 등
- '21년도 수익사업 상반기 법인세 가결산 세무조정 신고(서초세무서)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청렴의무 등 교육 실시
 - 일자/장소 : '21.8.26 11:00 / 협회 대회의실
 - 대상 : 협회 임직원
- 해수부 요구자료 제출(원양산업과)
 - 회원사 명단 제출 / 44개사
- '21. 8월분 임직원 원천세 신고 (서초세무서)

기획홍보부

-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관련 업계 간담회
 - 일자/장소 : '21.8.18 14:0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원양산업과장 외 담당자 (업계) 경양수산, 경태, 남북수산, 동남, 동원산업, 동원수산, 사조산업, 선우실업, 승진수산, 신라교역, 아그네스수산, 정일산업, 창진교역, 한성기업, 해인수산 등 20여명
 - (협회) 협회장, 양 임원, 부서장, 협력센터 등
 - 내용
 -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원양어선 업종별 노후어선 대체방안 발표 및 의견수렴
 - 선박 취득세 및 부가세 감세 관련 사항, 외국인 해기사 승선 및 통신장 승무원원 축소 등 선원수급 관련 사항, 주요 사관의 해외유출 및 고급해기사 양성 관련 사항 등 논의
 - 논의사항에 대한 원활한 진행과 가시적 성과를 위해 노사장학 TF 구성을 제안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농·어민과의 간담회
 - 일자/장소 : '21.8.26, 13:30 / 영상회의
 - 참석자 : 기후변화분과위원장, 농림수산전문위원장, 농식품부·해수부, 농·어민 단체대표 등 60여명 / 기획홍보부 이사 외 1명
 - 내용 : 2050 탄소중립 농축수산 분야 시나리오 발표 및 애로·건의사항 논의 등

- 원양산업지 8월호(제1136호) 제작
 - 협회소식 3건(포클랜드 수산청 “한국 원양어선 안전관리 훌륭해요”,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관련 업계 간담회, 2022년 어기 한-마이크로네시아 참치선망 입어협상)
 - 국내소식 10건, 해외수산정보 54건
 - 명예해양수산관 보고사항, 협회 업무 동향 등 정리
 - 교정 및 편집 의뢰, 인쇄 및 발송(315권)
- ‘21.9월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위원회 개최
 - 일자/장소 : ‘21.9.9 / 서면결의
 - 참석자 : 운영위원회 위원(6인)
 - 내용 : 12척 68.9억원 원안의결
- 2021 원양산업 통계연보 발간 관련 업무추진
 - 통계연보 2차 교정
 - 통계연보 화보 검토 및 수정
 - 2021 원양산업 통계연보 최종 교정 및 검토
 - 통계연보 인쇄의뢰
- 보도자료 작성·홍보, SNS 게시
- 가. 포클랜드 수산청장, 우리 원양어선 안전 상태에 찬사(8.12, 부산 일간지, 수산전문지)
 - 부산일보(8.16, 13면), 수산인신문(8.16, 3면), 수산신문(8.16, 5면), 한국수산신문(8.16, 8면), 어민신문(8.23, 5면)
- 나. 국적 원양어선, 하와이 인근에서 침몰 위기 요트 승선자 구조(8.25, 부산 일간지, 수산전문지)
 - 한국수산경제(8.30, 2면), 수산인신문(8.30, 3면), 한국수산신문(8.30, 4면), 수산신문(8.30, 5면)
- 다. 정일산업, 국내 최초 크릴 어업 MSC 인증 획득(8.25, 일간지, 수산전문지, 인터넷 언론사)
 - (지면) 부산일보(9.1, 14면), 수산신문(9.6, 1면), 한국수산경제(9.6, 2면), 수산인신문(9.6, 6면), 어민신문(9.6, 6면)
 - (온라인) 위클리서울, 내외일보, 일반경제신문, 민주신문, 더퍼스트, 밥상머리뉴스, 모닝경제
- 라. 해외수산협력센터, PNG·태평양 도서국 투자 설명회 개최(9.8, 수산전문지)
 - 한국수산경제(9.13, 2면), 수산신문(9.13, 2면), 수산인신문(9.13, 3면), 어민신문(9.13, 5면)
- 라. 늘어난 체중·근손실 관리에 명태(9.9, 일간지, 수산전문지, 인터넷 언론사)
 - (지면) 수산신문(9.13, 4면), 수산인신문(9.13, 6면)
 - (온라인) 리얼푸드(9.9), 내외일보(9.9), 우먼스토리(9.10)
- 원양산업 정보&뉴스 제공(118호 8.11, 119호 8.18, 120호 8.25, 121호 9.1, 122호 9.8, 회원사 임직원 카카오톡 및 이메일 송부, 홈페이지 게시)
 - 제118호 정보 20건(日, 아카미(붉은살) 부족 현상 가속/ 포클랜드, 감염병 통제 규정 개정/ 기후 변화, 크릴새우 번식에 영향 미친다)
 - 제119호 정보 22건(스페인 OPAGAC, 강제노동 참치 퇴출 목소리 높여/ 2021년 낚치 장기 어해황/ 중국의 새로운 수산업 발전 정책)
 - 제120호 정보 18건(혈중 오메가3 수치-수명 관계 연구/ 아르헨티나 6월 수산물 수출 통계/ 러시아 냉동 명태, 68루블로 하락)
 - 제121호 정보 19건(IATTC, 또다시 합의 실패/ 포클랜드 일렉스, 로리고 오징어 풍어/ 日 원양 낚치 대형선 첫 양륙 개시)
 - 제122호 정보 19건(다랑어류 IUCN 멸종위기 등급 개선/ 러시아 냉동 수산물 가격/ 日 낚치 지난 해보다 나아졌으나 여전히 적어)
- 협회 홈페이지 개선 작업
 - 회원사에 협조 요청하여 레시피 확보, 홈페이지 및 원양산업지 활용 추진
 - (참치, 낚치) ‘동원몰’ 자체제작 레시피
 - (메로) ‘게으른 수산시장’ 레시피
 - * 사조대립 ‘사조몰’ 및 ‘사조회참치몰’ 요청
 - 메로 레시피 6개 업데이트

- 업종별·어종별 어가 제출(8.23/해수부, 통계청)
 - '21년 2/4분기 및 3/4분기 적용어가 제출
- '21년 7월분 원양어획물 생산실적 분석(누계)

구분	생산량(MT)	전년비(%)
합 계	298,430	111
- 참 치	175,119	101
· 횡감용	19,999	91
· 통조림용	155,120	102
- 명 태	7,927	85
- 오징어	66,122	191
- 콩 치	2,440	180
- 기 타	46,823	95

회원지원부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추진
 - 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3차 업계 TF 회의 결과 알림 및 연구용역 공동 부담금 부과(회원사/8.9)
 - 37개사 186척 / 2,500만 원
 - 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장 및 검토 의견 제출(해수부/8.10)
- 추석 전 특별 근로감독계획 알림 및 임금체불 예방 요청(회원사/8.10)
 - '21.8.17 - 9.10일 기간 중 취약 업체 중점 점검
- 임금채권 및 송환기금증서 발행(8.12)
 - 해천물산(주) 해천202(참치연승/380톤)
-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허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알림(회원사/8.20)
 - 해외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 전재허가 신청서 제출이 전자조업 보고단말기를 통해 가능 등
- 외국인어선원 근로조건 개선이행 제3차 노사정 합동점검관련 업무

- 가. 합동점검 참석
 - 일시/장소 : '21.8.26, 14:00 / 협회 회의실
 - 참석자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해상노련, 원양노조, 원양업계 등 / 회원지원부장, 사원
 - 내용 : 2차 점검시 미비사항 확인 등 근로조건 개선사항 이행여부 점검
- 나. 합동점검 결과 안내(회원사/9.1)
 - 항목별 점검 결과 및 미제출자료 제출 요청
 - 참치연승 중간하선희망 수요조사 관련 이행방안 마련 요청
- 2021년 제1차 선원복지 실무위원회 참석
 - 일시/장소 : '21.9.7, 14:00 / 해수부
 - 참석자 : 해수부 선원정책과, 노조단체, 선주단체 등 / 회원지원부장
 - 내용 : 2022년도 선원 최저임금 관련 협의
- 수산식품 수출업계 현장간담회 참석
 - 일시/장소 : '21.9.9, 14:00 / 협회 회의실
 - 참석자 :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 수산물 수출업체 /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수산식품 수출업계 동향 및 의견수렴 등
- 2022년 조정관세 적용 대상품목 수요조사 자료 제출 (해수부/9.1)
 - 냉동 명태(22%)·콩치(24%)·오징어(22%) 조정 관세 적용 신청
-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배포(회원사/9.2)
- 2021년 대한민국 해사안전리더상 표창후보자 추천 요청(회원사/9.10)
 - 어선부문 장관표창 1명
- 2021 임금교섭 관련 업무추진
- 가. 제8차 노사위원회 개최
 - 일시 : '21.8.13, 10:00 / 영상회의
 - 참석자 : 노사위원장, 노사위원 /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장
 - 내용 : 2021년도 임금교섭 관련 협의

나. 제3차 노사양위원회 간담회 개최

- 일시/장소 : '21.8.19, 12:00 / 부산
- 참석자 : 노사 양위원장
/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장
- 내용 : 2021년도 임금교섭 관련 협의

다. 제4차 노사양위원회 간담회 개최

- 일시/장소 : '21.9.2, 12:00 / 부산
- 참석자 : 노사 양위원장

라. 제10차 노사위원회 개최

- 일시 : '21.9.9, 14:30 / 영상회의
- 참석자 : 노사위원장, 노사위원 /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장
- 내용 : 2021년도 임금교섭 관련 협의

○ 국제항해종사 선원 예방접종 관련 업무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8.17,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해운협회 등 유관단체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국제항해종사 선원 예방접종 계획 등

○ 코로나19 관련 업무추진

- 항만입국 증도퇴소 선원의 출국 관리 절차 변경사항 알림 (회원사/8.9, 9.8)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사항 안내 및 국가별 예방접종증명서 건본 송부 (회원사/8.9, 8.27)

-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연장조치 국가 안내 (회원사/8.11)

- 국제항해 종사 내국인선원 승선 전 PCR검사 시행 관련 협조요청 (회원사/8.13, 8.25)

- 국제항해종사자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알림 (회원사/8.18)

- 접종기간 : '21.8.23 - 9.30

- 방역강화 대상 국가 조정사항 알림 (회원사/8.18, 30)

- 국적선사 소속의 편승자 정보 확인 (통영, 부산검역소/8.23, 8.25, 9.9)

- 25명(한국 12명, 인도네시아 9명, 필리핀 3명, 베트남 1명)

- 원양어선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적제출 (해수부/8.6, 8.20, 9.10)

- 신청 총 400명 중 1차 접종 완료 344명(9.10)

- 내국인선원 승선 전 PCR 검사 확인 조사자료 제출(해수부/8.27)

- 2개사 2척 17명(내국인 전원) PCR검사 확인

-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 지정차 과태료 면제 요청 절차 알림(회원사/8.23)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선원관리 철저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요청(회원사/8.27)

- 인도네시아 교대선원 비자 제한기간 연장 알림 (회원사/8.27)

- 내외국인선원 근무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철저 요청(회원사/8.30)

- 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 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회원사/9.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0-3판) 개정 안내(회원사/9.2)

○ 해적관련 업무추진

가. 해적피해예방법 개정 관련 설명회 참석

- 일시/장소 : '21.8.19, 14:10 / 세종시
- 참석자 : 해수부, 유관기관 및 업·단체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해적피해예방법 주요 개정사항 설명 및 질의응답 등

나.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의심 정보 전파 및 경계활동 철저 요청(회원사/8.12)

다. 필리핀 마닐라항 해적사건 정보전파 및 경계활동 철저 요청(회원사/8.30)

라.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사건 정보전파 및 경계활동 철저 요청(회원사/9.7)

마.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홍보자료 배포(회원사/9.10)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 제17차 WCPFC SC(과학위원회) 참석
 - 기간/방식 : ' 21.8.11-19, 08:00 / 화상회의
 - 참석자 : WCPFC 회원국 / 협력1부
 - 내용 : 어종별 자원평가 결과 검토, 열대성다랑어 TRP 분석, 선망/연승 돌고래 취급 및 방류 가이드 라인 논의 등
- 전자모니터링(EM)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 사업 설명회참석
 - 일시/방식 : ' 21.8.19, 14:0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참치연승업계/ 협력1부
 - 결과 : 사업개요, 업계부담 경비, EM 작동방식 등 설명 및 질의응답
- 제12차 IATTC 이행위원회 참석
 - 일시/방식 : ' 21.8.20, 00:00 / 화상회의
 - 참석자 : 미국, 에콰도르, 일본 등 IATTC 회원국 / 협력1부
 - 결과 : 국별 이행사항 검토, 10월 특별회의에서 추가 논의 지속
- 제98차 IATTC 연례회의 참석
 - 기간/방식 : ' 21.8.24-28, 07:00 / 화상회의
 - 참석자 : 미국, 에콰도르, 일본 등 IATTC 회원국 / 협력1부
 - 결과 : 동부태평양 열대성다랑어 보존조치 부결 (10월 연례회의에서 지속 논의), EMS(전자모니터링시스템) 정약TOR작업계획 채택
- KMI-호주 울런공대학교 선원노동 및 안전에 관한 워크숍 참석
 - 기간/방식 : ' 21.8.24-25, 08:30 / 화상회의
 - 참석자 : KMI, 호주 울런공대학교, 중국 상하이 교통대학, ILO, FFA, 하와이 연승협회, 대만 FCF 등 / 협력1부
 - 결과 : 어선원 노동 및 안전에 관한 주요국 정책 및 법제도 공유, 업계 동향 공유 및 토론
- 제9차 참치연승어업위원회 개최
 - 일시/방식 : ' 21.8.25, 14:00 / 화상회의
 - 참석자 : 참치연승어업출어사 / 협력1부
 - 결과 : 과학원 EM 시범사업 참여 선박 및 IATTC EM 시범사업 참여 여부 협의
- 2022어기 한-투발루 입어협상 개최
 - 기간/장소 : ' 21.8.31-9.1, 09:00 / 화상회의
 - 참석자 : (투발루) 수산청장, 자문 등 (우리나라) 참치선망출어사, 협력1부
 - 결과 : 2022어기 투발루 수역 입어조건 합의, 입항전제 허용 요청
- 제2차 ICCAT 패널1 회기간 회의 참석
 - 기간/방식 : ' 21.9.1-3, 19:00 / 화상회의
 - 참석자 : EU, 일본, 남아공, 가나 등 패널1 회원국 / 협력1부
 - 결과 : 눈황다랑어 자원상태 및 어획할당량 재할당 연례회의 시 재논의
- 제2차 WCPFC 열대다랑어 워크숍 참석
 - 기간/방식 : ' 21.9.6-9, 08:00-12:00(한국시, 수요일 휴회) / ' 21.9.10, 14:00-18:00 / 화상회의
 - 참석자 : 미국, EU, FFA, PNA 등 WCPFC 회원국 / 협력1부
 - 결과 : 열대성다랑어 보존조치 개정 검토 등

-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 보존조치 이행 지원
 - 2021년 미국 IUU 보고서 안내
 - 바다거북 부수어획 관리조치 부족한 RFMO (ICCAT) 28개국 지정
 - 2021년 IATTC 해상전재 프로그램 분담금 2차분 배정(연승출어사)
 - 2021년 7월 WCPFC 눈황다랑어 어획실적 확인 (연승출어사)
 - 국제수산물기구별 선박(변경)등록 조치(계속)
 - 지역수산물 어획할당량 소진실적 및 전배 현황 제출(해수부)
 - CCSBT 남방참다랑어 7월 어획실적 및 9월 양륙 계획 제출
 - 2021년 IATTC 해상전재 프로그램 분담금 2차분 납부
 - 2021년 8월 WCPFC 눈황다랑어 어획실적 확인 (연승출어사)
 - 국제수산물기구별 선박(변경)등록 조치(계속)
- 참치어업 지원사항
 - 연안국 입어협상 진행
 - (키리바시) MOU 체결 협의 진행. 2021어기 가격 수준에 320일 추가구매 의사 전달 및 격리기간 감축 제안
 - (나우루) MOU 체결 합의. 전배 IN/OUT 조건 2021어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합의하여 서명 진행 중
 - 2022어기 키리바시 입어조건 합의
 - 협상 방식 : 서면 협의
 - 내용 : 2021어기 가격 수준으로 MOU 체결 합의 하여 서명 완료 후 라이선스 발급 대기
 - 기타 : 키리바시가 연말까지 입어약정 연장 입장 철회, 기존 1년(9.15~9.14) 입어약정 형태 유지를 통보하여 우려 서한 전달
 - 조업일수 추가 구매 및 전배

해외협력 2부

- 대러시아 업무추진
 - 가. 북양트롤 및 대구저연승 업무추진
 - '21년도 조업 허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조치사항 알림(8.12, 8.17 / 러수산청, 해수부, 남북수산, 성경수산)
 - 해상용전자저울 3대 추가 직인 보증 처리 (8.18 / 한성기업)
 - 러 해군, 우리나라 근해채낚기 입어선 경고사격에 따라, 러수역 입어 우리어선 조업 모니터링등 안전관리 강화 안내(8.20 / 러수역출어사)
 - 조업선 통제 감독관 작업복 준비 및 승·하선 이동 계획 제출 알림(8.30 / 북양, 대구위원장)
 - 조업선 통제 감독관 승·하선 예정일 및 보험 가입 알림(8.31 / 북양, 대구위원장)
 - 감독관 교체 계약 별첨 서명본 제출 (9.1 / 동북극국경수비대)
 - 러수역 조업선 입어로 송금 알림 (8.30 / 해수부, 주러대사관)
 - 트롤(4차), 저연승(4차), 봉수망(2차)
 - 제31차 한·러어업위원회 개최 대비 '22년도 회합 쿼터량 및 입어로 조사(9.9 / 러수역 출어사)
 - 다. 풍치봉수망 업무추진
 - 조업선 러수역 피항허가 요청 (8.10 / 사할린국경수비대)
 - 조업선 러수역 피항종료 정보 안내 (8.12 / 사할린국경수비대)
 - 러수역 조업허가선 VMS 별첨 계약서 서명본 및 이용료 납부안내(8.18 / CFMC)
 - 러수역 통역관 육상 근무에 따른 입어전 보고 및 일일보고 제출자료 안내(8.18 / 풍치위원장)
 - 사할린국경수비대의 러수역 조업 통제방안에 따른 체크포인트 검사 후 조업지 이동 및 조업 허용 알림(8.20 / 풍치위원장)

- 러수역 입어 예정일자 변경알림
(8.20 / 사할린국경수비대, CFMC)
- * 입어예정기간 : (당초) '21.8.25부터 ⇒ 10.20
/ 어황감안 변경
- 오징어어업관련 업무추진
- 가. '아그네스 108호' 김용환 선장에 대한 감사패부
상 전달식
 - 일시/장소 : '21.8.12, 11:30 / 협회장실
 - 참석자 : '아그네스 108호' 선장, 아그네스수산 이
사 / 협회장, 경영지원본부장, 해외협력
본부장, 해외협력2부장, 포클랜드 주재원
 - 내용 : 우수한 선박관리 및 선원 안전의식 고취감
사에 따른 협회장명의 감사패 및 남서대서
양위원장 부상 전달
- 나. 포클랜드제도 정부의 항만국통제(PSC) 실시 안
내 및 미입어선 주의당부
(8.19/ FAO41해구 출어선사)
 - 금년 6.1일부터 포클랜드제도 항만청의 PSC실시
에 따라, 포클랜드 전재등 사유로 입항 및 PSC대
상시 영국어선법(MSN1873등) 미준수(특히, 구
조보트 등 안전장비 등)할 경우, 억류될 수 있으
므로 주의 안내
- 다. 제4차 남서대서양오징어어업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1.9.1,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오징어채낚기출어선사 / 해외협력본부장,
해외협력2부장 외 2명
 - 회의결과
 - '22어기 일렉스허가 평가 기준 중 수산청의 문서
를 지지기로 함
 - 포클랜드 대방사 방한일정을 '21.9.27일 이후로
희망함을 통보기로 함
 - 콩치붕수망 조업선의 러수역 입어에 따라 대방사
일행 방한시 점검을 위해 입항하지 않기로 함
- 라. 포클랜드 내 백신 접종을 위한 한국선단 선원에
대한 백신수요 파악 및 제출
(8.25 / 드래곤社, 채낚기위원장)
- 마. 포클랜드 입어허가 시스템 변경 관련 한국 채낚기
의견 서한 제출(9.1 / 드래곤社)
 - 입어허가 평가 기준 중 선령 부분을 강화하는 사
안에 대해 신조 대만 어선 예시 제시하며 문제
소지 없음
- 바. 포클랜드 대방사 입어로 정산 자료 제공
(9.6 / 채낚기위원장)
- 사. 포클랜드 대방사 관계자 초청 및 격리면제 관련
제반 업무 추진(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 '22년도 포클랜드 입어 대비 입어정책 협의를 위
한 입어신청권자 입국 격리 면제 요청
(9.9 / 해수부, 외교부)
- 원양어업 노후선박 대체 관련 업무 추진
- 가. 원양어업 업종별 노후선박 대체 계획 마련을 위한
업계 간담회 참석
 - 일시/장소 : '21.8.10, 10:3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원산과(주재), 업계 / 해외협력본
부장, 해외협력2부장 외 2명
 - 회의내용
 - 신조선 건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 요청
 - 채낚기어선 및 저연승 표준 선형 추가 개발 요청
 - 신조불가 시 15년 이상 중고선 도입도 지원사업
포함 요청
 - 선박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른 장비 설치 비용
지원 포함 요청
- 나. 원양어선 안전펀드 투자심의위원회 심의평가
의견 및 위원명단 교체 알림
(8.27 / 세계로선박금융(주))
 - 펀드지원 대상을 원양어선 전 업종으로 확대 추
진 의견
-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서 제출(8.31 / 행정안전부)
- 라. '21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 대상자 추가 모
집 알림(9.7 / 전화원사)
 -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대상을 전업종 확대에
따른 사업 신청 알림

- 원거리해역 대응 시범사업관련 업무협의회 참석
 - 일시/장소 : ' 21.9.10, 14:00 / 해수부 지도교섭과
 - 참석자 : 해수부 지도교섭과장, 사무관, 한성기업 / 해외협력본부장, 해외협력2부장
 - 회의내용
 - 원양어선 활용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세부 내용 및 준비사항 검토
- 미 MMPA(해양포유류보호법) 대응관련 업무추진
 - 가. 공해 저층어업 해양포유류 혼획저감계획 관련 회의결과 및 보완 요청(8.10/남빙양저연승출어사)
 - 전문가 검토 의견에 따라 혼획저감장치 부착 동의에 따라, 엠브렐러 사양정보제공 및 혼획저감장치 엠브렐러 설치계획을 보완하여 제출 요청.
 - 나. 공해 저층어업(저연승) 해양포유류 혼획저감계획 보완 제출(8.24 / 해수부)
 - 엠브렐라(Cachaloterus) 장비가 점진적인 학습에 의한 해양포유류의 접근 차단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올해 11월 미국 동등성평가 전에 혼획저감장치를 설치할 예정.
 - 다.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알림 (8.27 / 남서대서양 저연승, 트롤출어사)
 - 저연승 조업선의 옴서버 승선비율 100%로 상향
 -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계획 마련
 - 라. 공해 저층어업(트롤) 해양포유류 혼획저감계획 마련 협의회 개최
 - 일시/장소 : ' 21.8.27,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 KMI, 업계 / 해외협력2부
 - 회의내용
 - 해양포유류 탈출장치(SLED) 설치가 가장 효율적인 혼획저감방법임
 - 오징어트롤어업의 대미 수출금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동등성 평가 승인을 위한 적극적 대응 필요

- 마. 남서대서양트롤출어사 협의회 개최
 - 일시/장소 : ' 21.9.8,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남서대서양트롤출어사 / 해외협력2부
 - 회의내용
 - 남서대서양공해 저층트롤어업에 대한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조치에 대한 결의 사항 마련
- 바. FAO 41해구 해양포유류 혼획 현황('14~ '18년) 알림(9.9 / 남서대서양 저연승, 트롤출어사)
- 사. 공해 저층어업(트롤) 해양포유류 혼획저감계획 보완 제출(9.9 / 해수부)
 - 금어기, 금어구 설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 및 해역을 명시한 업계간 결의 사항 제출
- 남극 MPA 및 보존조치 관련 업무추진
 - 가. 남극 MPA 관련 남빙양출어선사간 업무협의회 개최
 - 일시/장소 : ' 21.8.23,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남빙양출어사 / 해외협력본부장 외 3명
 - 회의내용
 - 동남극해 MPA 설정시 과학조사 이행 유지 요청
 - 웨델해 MPA 설정은 반대하지 않음
 - 남극 반도 MPA 설정은 조업 히스토리 기반으로 보존조치 개정 요청
 - 나. 남극 MPA 관련 남빙양출어선사와 해수부간의 업무협의회 개최
 - 일시/장소 : ' 21.8.23, 16: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 국제협력총괄과장, 남빙양출어사 / 해외협력본부장, 해외협력2부장 외 2명
 - 회의내용
 - 정부 및 과학원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주체적으로 연구, 대안 마련 필요
 - 다. 해외전문가 초청 도메인1 MPA 설정 간담회 참석
 - 일시/장소 : ' 21.8.26, 19:00 / 영상회의
 - 참석자 : 칠레 및 아르헨티나 남극연구소 전문가,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 국제협력총괄과장, NGO, 남빙양출어사 / 해외협력본부장, 해외협력2부장 외 2명
 - 회의내용

- 자원량 감소 및 펭귄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크릴자원 보호 필요
- 과학연구구역이 설정 되지 않고 MPA 구역 지속 변경 제안 등은 보완 연구가 필요함
- 라. 제3차 남극해양보호구역(MPA) 증장기 전략수립을 위한 워크숍 참석
 - 일시/장소 : ' 21.9.7, 15: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 국제협력총괄과장, NGO, 남빙양출어사 / 해외협력본부장, 해외협력2부장 외 2명
 - 회의내용 : 전문 인프라 구축이 필요
- 마.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WG-FSA 의제별 검토의견 및 참석자 제출 알림(9.3 / 남빙양출어사)
- 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WG-FSA 참석자 제출(9.6 / 수과원)
- 사. SPRFMO 선박 등록 정보 변경 요청(9.6 / 해수부)
 - CCAMLR 보존조치 잠정위반사항 소명자료 조사/제출(8.19 / 해수부)
 - 오징어 채낚기 조업선 등록 정보 변경(8.9 / NPFC)
 - 정일산업 세인1호, 세인7호

부산지부

- 공인차량계량소 업무추진
- 가. 총 64개사 805건(7.1~7.31) 계량
- 나. 내부시설 수리('21.9.3~5)
 - 컨테이너 내부 바닥 공사
- 다.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신청 ('21.9.7, 부산시 서구청)
- 순직선원위패봉안 및 합동위령제 실무자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9.7, 11:00 /부산 마린센터 4층 회의실
 - 참석자 : 해운조합, 선주협회, 해기사협회, 수협, 선박관리자협회, 선원복지고용센터,

- 원양협회(부산지부 이사) 등 7개 단체
 - 내용: 코로나 상황으로 8개 단체 임직원만 참석, 최소한의 준비
- 부산권 냉동창고 근로자 산재보험관리기구 및 복지위원회(연금+건강보험) 이사회
 - 일시/장소 : '21.9.9 / 서면결의
 - 참석자 : 냉동창고 화주 및 노조 등 11명(부산지부 이사)
 - 내용 :
 - (산재) '21.8월 산재보험 대상자 확정 신고
 - (복지) '21.8월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확정 신고
- 원양어선 입출항현황 조사 보고(부산항만청)
 - 입항 : 1개사 1척(참치연승1)
 - 출항 : 4개사 6척(참치선망1, 참치연승5)
- 각종 확인 업무
 - 원양어업용선수품 무환반출 확인업무
 - 원양어획물 양륙신고 확인업무
 - 수출확인업무

해외수산협력센터

- <국제협상지원팀>
 - 회의 참석
- 가. CCAMLR MPA 업계 간담회
 - 일시/장소 : ' 21.8.23. / 영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우동식 국장, 유은원 국총과 과장, 김정례 주무관, 업계, 원양협회,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 내용: 남극지역 MPA 설정에 대한 업계 의견 청취
- 나. 제12차 IATTC 이행위원회 참석
 - 일시/장소 : '21.08.20/영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국총과 오성택 사무관, 나일강 주무관, 협력센터 김수민 전문관, 협회, 수품원, FMC

- 내용: 2020년 회원국 이행/미이행 사항 검토 등
다. 제8차 IATTC 재정위원회

- 일시/장소: ' 21.08.21/영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국총과 오성택 사무관, 나일강 주무관, 협력센터 김수민 전문관

- 내용: 2022년, 2023년 예산안 검토, 사무국 역량 강화 방안 검토 등

라. 제98차 IATTC 연례회의

- 일시/장소: ' 21.08.24~28 / 영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국총과 오성택 사무관, 나일강 주무관, 협력센터 김수민 전문관, 원태훈 전문관, 협회, 수품원, FMC

- 내용: 열대성 다랑어 보존조치 개정 및 참다랑어 보존조치 검토 및 개정 논의 등

마. 아시아태평양수산물위원회(APFIC) 작업반 회의

- 일시/장소: ' 8.18~19/ 영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국총과 장민주 주무관, 센터 양재걸 전문관

- 내용: APFIC 미래에 관한 회원국 설문지 논의 등

바. 제26차 남방참다랑어 보존위원회(CCSBT) 확대과학위원회(ESC)

- 일시/장소: ' 21.8.23~8.31/ 영상회의
- 참석자: 수과원 원양자원과 이성일 연구관, 임정현 연구사, 해외수산협력센터 김선경 전문관

- 내용: CPUE 해석, '22년도 TAC 관련 과학적 논의, 남방참다랑어 자원관리에 관한 과학적 조언 정리

사. 남극해 MPA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시/장소: ' 21.08.26/영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수과원, 업계, 원양협회, 남극 관련 기관,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김수민 전문관

- 내용: 남극해 도메인1 MPA 제안서에 관한 칠레/아르헨티나 전문가 발표 및 질의 응답

〈해외진출지원팀〉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운영

- 원양산업뉴스 27건 업로드
- E-NewsLetter 7월호 발송

○ 명예해양수산물 제도 운영

가. 명예해양수산물 활동보고서 OFIS 게재(8건)

나. 명예해양수산물 추천요청 (8.3~8.17, 전화원사, 협의회회원사)

- 임기만료 명예해양수산물(사모아 오시영, 인도네시아 이재원) 재위촉 또는 신규위촉 추천 요청

○ 연안 개도국 수산인프라 지원 사업

가. '20년 키리바시 사업 관리
- 계약업체 제작 및 물품 구매계획 승인(8.18)

- 변경 계약서 작성(8.23)

○ 원양산업 통계조사 사업추진

가. 결과보고서 작성

- 조사 결과 요약, 보고서용 집계표, 그래프 작성

나. 조사 결과 검토

- 통계조사 결과 서면검토(8.23.~8.26.)

다. 원양어업 생산동향('21.6.) 작성 및 OFIS 게재

○ 해외투자 전문교육 및 투자정보조사

- PNG Fisheries Strategic Plan 2021-2030 등 6건

○ 어업개선사업 운영관련 전문가 초청회의 개최

- 일시/장소: ' 21.8.27/ 원양산업협회

- 출장자: 권현욱 센터장, 이원영 행정관, 서규혁 행정관, 김수민 전문관, 양재걸 전문관

- 내용: MSC 인증취득 관련 사전컨설팅 지원 방안 추진 관련 협의



참치마요 햄무스비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 참치 100g, 햄 200g, 현미밥 200g,
구운김 1/2장, 체다치즈 1장, 피클
1개, 청양고추 1/2개, 홍고추 1/2개

<소스>

마요네즈 30g, 소금 약간, 참기름 3g, 참깨 2g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햄을 50g씩 잘라 노릇하게 구워준다.
- ② 참치는 마요네즈, 피클, 홍고추, 청양고추와 버무려 준비한다.
- ③ 현미밥을 소금, 후추, 참깨, 참기름과 버무려준다.
- ④ 무스비 틀에 반으로 커팅한 김을 깔고 밥 → 햄 → 치즈 → 참치필링 → 밥을 넣고 김으로 말아 완성한다.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8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세네갈 다카르-지진쇼 간 셔틀 선박 운항 중단

- 세네갈 코사마사의 다카르-지진쇼 간 셔틀 운항 중단 원인이 코로나 문제로 밝혀졌다.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파운드, lbs)	가격(유로/톤)
가다랑어	3.4kg 상	1,201
	1.5kg 상	1,158
	1.5kg 하	1,029
황다랑어	10kg 상	2,101
	5kg 상	1,713
	3.4kg 상	1,151
눈다랑어	10kg 상	1,201
	3.4kg 상	1,201
	1.8kg 상	1,158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다카르항	412 유로/MT	경유	'21.8.26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코로나 관련 동향

- 2차 접종 완료 인원이 50%를 돌파했다.
- 통행금지 시작 시간이 기존의 오후 6시에서 8시로 늦춰졌으며,

11월부터 시작될 국경 개방을 대비해 공항 정비 및 리조트 예약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날개다랑어	10kg 상	2,900	로인가공용(PAFCO)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TOTAL	817달러/MT	M.G.O	'21.9.10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업 동향

- 금월 사모아 연근해 및 쿡아일랜드 어장에서의 연승선 조업은 날개다랑어 0.3~0.7톤, 황다랑어·눈다랑어 0.2~0.4톤으로 전월 대비 다소 감소했다.

나. 코로나 관련 동향

-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자는 없으며, 모든 사업체 및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 중이다.
- 첫 일반 운항은 9월 13일이며, 이후 9월 27일, 10월 11일·25일, 11월 8일·22일, 12월 6·20일 운항 예정이다. 내년도 운항 일정 추후 공표 예정.
- 외국인 및 자국민이 입국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우선 탑승 21일 전 'Talofa Pass'라는 웹사이트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이후 10일 전·5



일 전48시간 전 코로나 검사 음성판정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하와이에서 5일간 체류하며 코로나 검사 2회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하와이 체류 중 검사비 1회 140달러).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550	
눈다랑어	라운드	1,350	
가다랑어	라운드	1,350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조사일
Clipper; Oil	\$2.50(gallon)	'21.9.6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외국인 선원 615인 입국 허가 결정

- 뉴질랜드 정부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선원 의존도를 낮추는 등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업계에 총 615명의 외국인 선원 입국 허가를 결정했다. 격리 등 비용은 업계가 부담한다.

나. 어류가격 동향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HOKI	2L	2,350	Sea Jho Co.Ltd
	L	2,350	
	M	2,200	
	S	2,000	
SQUID	3L	5,150	
	2L	5,350	
	L	4,700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Z	MGO \$855/MT (Bluff에서 공급 기준)	'21.9.7
	LMFO \$753/MT (Timaru에서 공급 기준)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가나 한인 경영 가다랑어 채낚기업 고사 위기

- 1973년 동원산업, 해외어업, 태창수산 등이 진출해 최근까지 호황을 누린 가나 가다랑어 채낚기 어업이 위기에 처했다.
- 가나는 2014년 EU의 옐로카드 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2017년 선상어선과 가다랑어 채낚기어선 간 연계 조업(collative fishing)에 대한 금지 규제 조치까지 받게 되었다.
- 또한 채낚기 어업에 필수적인 멸치 미끼 확보가 수중등 금지 규제와 현지 어업자들과의 마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끼 조달에 시간을 허비해 조업일수 유지에 큰 손해를 겪고 있다.
- 여기에 가나 해적 피랍 문제, 2015년 가나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면세제도 철폐 등의 악재까지 겹쳐, 본래 한인 업체 8개사가 12척을 운영하던 가나 한인 채낚기 업체는 현재 4개사 6척만이 조업하는 등 50년 역사 최대 위기에 처했다.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kg)	가격(US\$)/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1,800	
	10kg 하	1,440	
가다랑어	3.4kg 상	1,325	
	1.8kg 상	1,275	
	1.5kg 상	1,125	
	1.5kg 하	975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기타
양상급유	650달러/키	M.G.O	'21.8.31	
항만급유	630달러/키	M.G.O	'21.8.31	

이재원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재원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인도네시아 2021년 상반기 수산물 수출실적

- 총 수출량 : 58만 1,857톤 / 총 수출액 : 36조 9,900억 루피아 (1달러 = 1만 4,300 루피아)
- 수출대상 국가별 실적

- 미국 : 12만 6,930톤 (16조 4,200억 루피아) / 중국 : 19만 9,220톤 (5조 4,900억 루피아) / 일본 : 4만 3,600톤 (3조 9,900억 루피아) / 아세안 : 10만 2,247톤 (3조 8,600억 루피아) / EU : 2만 4,066톤 (1조 8,900억 루피아) / 호주 : 7,035톤 (7,900억 루피아) / 대만 : 1만 4,237톤 (7,500억 루피아) / 중동 : 1만 3,864톤 (7,200억 루피아)

나. 인도네시아 2010~2019년간 연도별 총 어획량 추이(ton)및 어획 쿼터 대비 소진율(%)

- 2010년: 503만톤 (48.83%) / 2016년: 611만톤 (62.33%) / 2017년 : 642만톤 (62.33%) / 2018년 : 669만톤 (64.95%) / 2019년 : 781만톤 (75.82%)

다. 2012~2019년 인도네시아 수역 내 외국 불법조업선 나포척수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자료)

- 2012년 : 112척 / 2013년 : 68척 / 2014년 : 43척 / 2015년: 108척 / 2016년 : 152척 / 2017년 : 132척 / 2018년 : 106척 / 2019년 : 107척

라. 2019년 국가별 불법 조업어선 척수

- 베트남 : 22척, 말레이시아 : 21척, 필리핀 : 15척, 기타 : 32척

마. 코로나 관련 동향 (9월 9일 기준)

- 인도네시아 전체 확진·사망 현황
 - 누적 확진자 : 4,153,355명 (+5,990)
 - 회복 : 3,887,410명 (+10,650)
 - 사망 : 138,116명 (+334)
- 백신 접종 현황
 - 총 접종대상자 : 208,265,720명
 - 1차 접종 : 70,322,560명 (+1,128,021)
 - 2차 접종 : 40,362,820명 (+641,249)
 - 3차 접종 : 746,268명 (+8,931)
 - 7월 중순 최다 일일 확진자(약 6만명)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
 - 대부분의 지역이 주민활동제한 단계를 4단계에서 2~3단계로 하향조정
- 한인 동포 코로나 관련 현황
 - 누적 확진자 372명/ 치료 중 5명(입원 0명, 격리 5명)/ 회복 261명/ 사망 18명



정승화 피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



가. Fisheries Strategic Plan 2021

~2030(08.25/APEC House)

참석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

- 수산청에서 개최한 장기 계획을 발표하는 장에, 일반 기업의 일원으로 초청을 받아서 참석했다.
- 참석자는 PNG 수상을 비롯해 수산청장과, 이사회 회장, 그리고 수산청 전체 직원이었으며, 업계에서도 필리핀계 참치 선단 및 참치캔 제조사의 거의 대부분이 참석했다. 수산청 자체적으로 그동안 미진했던 산업계와 미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조만간 업계별 미팅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 수산청장, 이사회 회장, 장관, 수상 순으로 연설을 하였으며, 눈에 띄는 특별한 사항은 이사회 회장인 Mr. Ango Wangatau가 연설중 수산청이 차후 자체적으로 선망 조업에 뛰어 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대부분의 관련자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으나, 26일 신문에서까지 다루어짐에 따라 차후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어 왔으나, 대부분이 정치인의 부패 용도로 쓰이다 결론적으로 실패의 형태로 파산하는 모양새를 띄어 왔다.
- 처음에 내걸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PNG에 도움을 주면서 plus 알파를 얻을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을 추진한다면 한국에서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성공된 예를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키워나가는 방식의 접근을 한다면 현재 한국 해양수산부에서 원하는 형태의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어류가격 동향

어종	단가	기타
새우	13.5달러/kg	9월 수출 새우 평균가(일본)
바닷가재	52달러/kg	Onatus Rock Lobster : Tail only(미국)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유종	조사일
TWL Logistics Ltd	0.7131달러/리터	Diesel	'21.9.8

〈계재순서 : 명예해양수산물 성명 가나다순〉





참다랑어·황다랑어·날개다랑어, 멸종위기 등급 개선

지속가능 노력 성과...인도양 황다랑어 등 여전히 관심 필요

한때 멸종위기 종으로 분류되었던 일부 다랑어가 멸종위기 등급에서 제외되거나 개선된 등급을 받았다.

IUCN는 적색목록에서 야생동물 종을 멸종이 임박한 순서에 따라 멸종 위급(Critically Endangered), 멸종 위기(Endangered), 취약(Vulnerable), 준위협(Near Threatened), 최소 관심(Least Concern) 순으로 분류한다.

최근 발표에서, 한때 절멸 위기 등급이던 대서양 참다랑어는 이제 최소 관심 등급으로 새롭게 분류되었다. 날개다랑어와 황다랑어는 원래 준위협으로 분류

되었으나, 최근 발표에서 최소 관심 등급으로 이동했다. 남방참다랑어는 절멸 위급에서 절멸 위기로 개선되었고, 눈다랑어는 취약 등급을 유지했으며, 가다랑어는 최소 관심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대서양 서부 참다랑어와 인도양 황다랑어 등 일부 지역의 다랑어 종은 여전히 우려 상태로 지적되었다.

* 기사 출처: BBC, 2021년 9월 4일자, National Geographic, 2021년 9월 4일자

IATTC 보존 조치 논의, 또다시 합의 실패

엘살바도르 반대 결정적...스페인 기업 이해관계 지적 나와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당사국이 또다시 동부태평양 열대참치 보존 조치 합의에 실패했다.

올해 IATTC-국제돌고래보존 프로그램(AIDCP) 연례 회의는 지난 8월 23~27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회의 중반까지만 해도 합의 타결에 비관적이었던 분위기는 27일 미국과 에콰도르가 공동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낙관적으로 변했다. 이 공동제안서는 거의 모든 핵심 사항을 다루고 타 회원국들의 제안에서 단편적인 부분을 차용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의 제안은 엘살바도르 대표단이 일부 중대한 안전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엘살바도르가 미국-에콰도르 제안서를 반대한 이유는 자국에게 큰 이익이 되는 과테말라-니카라과의 제안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콰도르의 제안서에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3국이 제안한, FAD를 한 번에 대폭

감축하지 않고 매년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관계자들은 합의 도달을 위한 일부 FAD 어업의 타협 의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엘살바도르는 미국-에콰도르 제안서에서 IATTC에 FAD 데이터를 제출하지는 제안과 눈다랑어 혼획량으로 선단의 어획량 감축을 결정하는 등의 사안으로 인해 반대를 표명했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는 스페인 기업의 어선을 국적선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스페인 기업 가공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이 자국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스페인 기업의 이해관계를 간접적으로 대변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IATTC 보존 조치 합의는 오는 10월의 IATTC 정기총회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8월 30일자



7월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어획량 감소

FAD 금지 시행으로 15% 감소

7월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어획량은 6월 대비 15% 감소한 10만 147톤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어획량과 큰 차이가 없다. 전체 어획량의 40%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어획되었고, 키리바시의 7월 어획량은 50%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FAD 금지 기간 동안, 선망선은 스쿨조업 어장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그러나 공해와 PNA EEZ 모두 조업 노력이 소폭 감소했다. 공해 및 PNA EEZ에서의 선망선 조업 일수는 총 4,100일 정도로 나타났다. PNA EEZ 조업일은 3,876일 7월만 비교했을 때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선망선은 동부 수역에서 PNA 중부 및 파푸아뉴기니 수역으로 이동해 조업했다. 총 조업일수의 31%는 파푸아뉴기니에서, 26%는 키리바시에서 소요했다.

7월의 공해 및 PNA 수역 1일 어획량 평균은 25톤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이며, 2020년 이후 기준으로도 최저 수준이다.

중서부태평양 선단의 1일 가다랑어 어획량은 지난해 동월과 비슷한 21톤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6월과 비교하면 약 2~3톤 감소했다. 흥미롭게도 7월 한 달 동안 대형 황다랑어 어획량은 증가해 올해 두 번째로 많았다. 대형 황다랑어 어획량은 2021년 들어 5월을 제외하고 대부분 1일 1톤 미만을 기록했으나, 7월에는 2톤 이상을 기록했다. 특이하게도 주로 FAD로 어획되는 황다랑어 치어 어획량 또한 7월 들어 소폭 증가했다. 눈다랑어 9kg 이하와 9kg 초과 개체의 1일 어획량은 모두 미미한 수준이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8월 25일자

방콕 냉동 가다랑어 가격 8% 하락

톤당 1,375 달러...가공업자 부담 여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방콕 1.8kg 이상 냉동 가다랑어 원어 현물 가격은 톤당 1,375 달러이다. 3주 전 가격인 1,500 달러 대비 약 8% 하락했다. 8~9월 FAD 금지 기간 동안 나타나는 이러한 가격 변동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가공업자들은 모든 방면에서 발생 중인 비용 급증으로 인해 가다랑어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운임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캔에 쓰이는 강철 가격은 20% 상승했다. 또한 현

재 코로나로 인해 공장이 50%만 가동되고, 인력난 문제도 있다. 참치캔용 가다랑어 원료 수요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가공업자는 태국의 코로나 상황이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되었다고 덧붙였다. 태국 측 자료에 따르면 참치캔 가공 공장이 많이 위치한 방콕과 Samut Sakhon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9월 6일자



방콕 황다랑어, 낮은 어획량에도 공급 안정적

2021년 상반기 약 4만 7,057톤 수입

2021년 상반기 중서부태평양 황다랑어 어획량이 현저히 낮았으나, 같은 기간 방콕에 들어온 황다랑어 물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다랑어와 눈다랑어 양륙량은 각각 44%, 70% 증가했다.

2021년 상반기 방콕에서 수입한 냉동 황다랑어 물량은 4만 7,057톤으로, 지난해 대비 약 200톤 많다. 가격은 지난해 대비 약 20 달러 높은 톤당 1,616 달러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들어 중서부태평양, 인도양에서 황다랑어 어획이 극히 적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흥미로운 수치이다. 방콕에서 거래되는 황다랑어의 대부분은 치어이다.

가장 어획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된 분야는 대형 황다랑어 어업이다. 대형 황다랑어 어획량은 '20년

12월~'21년 4월 동안 일일 1톤 미만을 기록했고, 5월 들어 다소 증가했으나 6월에 다시 감소했다. 방콕에서 대형 황다랑어 가격은 높은 수요로 인해 톤당 2,500 달러를 기록했다.

황다랑어 수출의 대부분은 한국, 대만, 키리바시, 나우루, 바누아투 등 가다랑어가 주 어종인 선단이다. 이러한 황다랑어 어획물의 상당수는 치어일 가능성이 높다.

방콕에 대형 황다랑어를 공급하는 인도네시아 채낚기 선단의 수출 물량은 특이하게도 37%나 증가했다. 한편 몰디브 선단 어획물은 물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가치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8월 19일자

세이셸 가다랑어, 톤당 1,150 유로

황다랑어 톤당 2,050 유로로 상승

인도양 참치 어획량은 8월에 예상되었던 정상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참치캔 재고 보유량 또한 양호한 수준이다. 참치 가격에도 큰 변동이 없었다.

8월 말 세이셸 1.8kg 이상 냉동 가다랑어 원어 가격은 1,150 유로(약 1,356 달러)로, 8월 초 가격인 1,140 유로(약 1,345 달러)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인도양 참치 가공 공장들은 생산량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원어를 사들이며 수 개월 간 이어진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일부 선주들은 운임을 감안해도 더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세이셸 대비 톤당 350 달러가 더 소요되는 운송선 비용을 감수하고 에콰도르 만타에 어획물을 판매하고 있다.

세이셸 10kg 이상 냉동 황다랑어 원어 가격은 2,050 유로(약 2,418 달러)로, 8월 초 가격인 2,000 유로 대비 2.5% 상승했다. 현지 소식통들은 현재 선단 상황과 어획량을 감안하면 올해 황다랑어 어획 쿼터를 모두 소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8월 30일자



2020년 세계 참치 어획량 6% 감소

중서부태평양 어획량 감소 영향

남태평양위원회(SPC)와 해양수산계획(OFP)은 8월 초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과학위원회에서 연간 참치 어획량 추산치를 발표했다.

2020년 전 세계 참치 어획량은 510만 1,520톤으로, 지난해 대비 33만 2,761톤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어획량은 1960년 이후 3번째로 많았다. 중서부태평양 어획량이 지난해 대비 32만 2,000톤 감소해 전세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서부태평양을 제외한 다른 수역의 어획량은 2019년과 유사했다. 동부태평양 어획량은 1만 289톤 증가했다. 대서양 어획량은 56만 3,520톤, 인도양 어획량 118만 3,305톤으로 2018년과 비슷했다.

주요 참치종 중에서는 가다랑어가 가장 크게 감소했다. 2020년 가다랑어 전체 어획량은 303만 8,351톤으로, 지난해 대비 27만 2,716톤 감소했지만 1960년

이후 3번째로 많았다. 가다랑어 어획량은 2018년 300만톤을 넘어선 이후 한 번도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다른 참치종의 어획량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황다랑어 어획량은 2010년부터 증가해 2018년에는 150만톤을 넘어섰다. 그러나 2020년 어획량은 지난해 대비 약 5만 1,318톤이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황다랑어 주요 어획 수역인 인도양과 동부태평양 어획량이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눈다랑어 어획량은 가다랑어 어획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1만 719톤 증가했다. 날개가다랑어 어획량은 지난해 대비 1만 9,500톤 감소했다. 이는 2016년을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가장 적은 어획량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8월 31일자

2020년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어획 9% 감소

연승, 채낚기 어획 급감

중서부태평양의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날개가다랑어 등 4대 상업용 참치 어획량은 2019년 298만 8,661톤에서 2020년 266만 8,063톤으로 감소했다. 2019년은 지난 60년간 중서부태평양 최대 참치 어획량을 기록한 해였다.

2020년 중서부태평양 선망 어업 참치 어획량은 191만 6,118톤으로, 전체 중서부태평양 어획량의 72%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9%(22만 2,649톤) 감소했지만 지난 10년 중에서 4번째로 많았다. 황다랑어 어획량은 4만 4,000톤 증가한 39만 1,250톤을 기록했다.

채낚기 어획량은 지난해 대비 약 4만 3,000톤 감소한 15만 2,098톤으로, 지난 50년을 통틀어 최저 수준이다. 채낚기 어업에서는 가다랑어와 황다랑어 어획량이 특히 감소했다.

연승 어업 참치 어획량은 21만 1,773톤으로 지난해 대비 22% 가까이 감소했다. 1993년 이후로 거의 없었던 낮은 수준이다. 연승 어업 황다랑어 어획량은 2019년 10만 6,279톤을 기록했으나 2020년 7만 2,357톤으로 급감했다. 눈다랑어와 날개가다랑어 어획량도 크게 감소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9월 2일자



日 재무성, 1~7월 참치 수입 통계 발표

냉동 남방참다랑어 39% 증가, 눈다랑어 6% 감소

어종·국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누계	
날개다랑어	한국	37	-	53	35	113	27	45	310
	대만	355	-	130	688	-	64	335	1572
	바누아투	721	4	185	894	242	6	-	2052
	기타	81	6	21	52	9	36	290	495
	소계	1194	10	389	1670	428	70	670	4431
황다랑어	한국	266	318	309	380	458	412	410	2553
	중국	321	205	655	253	326	254	451	2465
	대만	844	1211	1531	1702	1304	1102	1535	9229
	필리핀	-	19	150	198	171	204	114	856
	인도네시아	-	21	33	7	15	-	-	76
	미국	-	17	-	12	-	31	3	63
	바누아투	128	106	114	211	129	124	283	1095
	피지	11	27	17	112	31	48	27	273
	키리바시	43	33	32	31	202	291	248	880
	마셜제도	104	-	54	-	25	-	257	440
	기타	1286	1440	1236	569	625	1003	969	7128
소계	3003	3397	4130	3477	3286	3469	4296	25058	
눈다랑어	한국	85	32	308	158	168	296	352	1399
	중국	587	271	1125	573	327	549	918	4350
	대만	1509	2427	2661	2627	1909	1487	2606	15226
	세이셸	469	1123	826	376	460	292	460	4006
	바누아투	156	319	510	576	328	55	48	1992
	기타	145	63	59	99	22	95	113	596
	소계	2951	4236	5489	4409	3212	2774	4496	27567
남방참다랑어	한국	354	-	-	-	-	40	-	394
	대만	56	32	50	23	2	5	1	169
	호주	-	-	-	-	-	-	715	715
	소계	410	32	50	23	2	45	716	1278

※ 신선·냉장·필렛, 2020년, 참다랑어(태평양, 대서양) 수치 필요 시 문의 요망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9월 6일자



2021년 상반기 EU 참치캔 수입 통계 발표

에콰도르 25% 감소...세이셸, PNG 증가

올해 상반기 EU 참치캔 수입량은 지난 5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EU 참치캔 수입량은 25만 4,602톤으로, 지난해 동기 29만 5,861톤 대비 14%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폭은 20피트 컨테이너 약 20대분 수준이다. 이 중 EU 이외 국가로부터 수입한 양은 14만 1,726톤으로, 지난해 대비 16% 감소했다.

에콰도르산 참치캔 수입량은 3만 8,008톤으로, 2019년 대비 약 1만 1,000톤 감소했다.

필리핀산 참치캔 수입량은 1만 7,585톤으로 지난해 대비 12% 감소했고 2019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파푸아뉴기니산 참치캔 산업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EU에서의 입지를 크게 늘리고 있다. 파푸아뉴기니산 참치캔 수입량은 1만 6,580톤으로, 2019년 대비 2배

가까운 수준이다. EU 참치캔 수입량에서 필리핀산과 파푸아뉴기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3%로, 27%를 차지한 에콰도르산을 따라잡고 있다. 필리핀과 파푸아뉴기니 모두 EU에 면세로 수출한다.

EU 수출량이 증가한 국가는 파푸아뉴기니를 제외하면 세이셸이 유일했다. 세이셸의 EU 수출량은 지난해 대비 6% 많은 1만 5,888톤이다.

가나는 지난 수년간 EU 수출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6월 EU로부터 받은 옐로카드 조치가 향후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U 국가 간 수출량은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네덜란드의 EU 국가 상대 수출량은 2만 1,236톤으로, 지난해보다 적지만 2019년보다 약 6,000톤 많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9월 1일자

EU 2021년 상반기 참치 로인 수입통계 발표

태국·필리핀 증가, 중국 감소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EU 가공업자들은 참치 자숙로인 10만 4,050톤을 수입했다. 지난해 대비 6% 감소했지만 2019년 9만 7,012톤보다는 여전히 많다. 2021년 2분기 수입량은 1분기 수입량 대비 11% 감소했다. 톤당 평균 수입 단가는 4,354 유로로 지난해 가격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중국산 수입량은 2만 7,892톤으로 지난해 대비 26% 감소했고, 톤당 평균 단가는 3,409 유로로 지난해 대비 1% 하락했다. 중국은 올해 1분기에 자율할당관세(ATQ)를 대부분 소진했기 때문에, 2분기에는 약 1,500톤만을 수출했다.

필리핀, 베트남, 태국 3개국 수입량은 1분기에 ATQ가 소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특히 필리핀산 수입량은 4,980톤으로 지난해 대비 115% 증가했고, 태국산 수입량은 3,620톤으로 지난해 대비 22% 증가했다.

태국산 참치 로인의 톤당 단가는 수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3,640 유로이다. 이는 태국산 로인의 대부분이 가다랑어임을 의미한다. 반면 베트남산 단가는 지난해 대비 상승했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 더 많은 황다랑어 로인을 수출한 것으로 추측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9월 3일자



美 2021년 상반기 참치캔 수입량 22% 감소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 회귀

2021년 상반기 미국 참치캔 수입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22% 감소해, 팬데믹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왔다.

2021년 상반기 미국 참치캔 수입량은 6만 6,807톤으로, 지난해 8만 5,810톤 대비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코로나 유행 시작 이후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수요가 평균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여진다.

평균 FOB 가격은 톤당 4,634 달러로, 지난 5년간 최고치이자 2019년동기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대량 구매로 인해 소매상들의 참치캔 재고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수입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아시아-미국 간 해상 운임이 지난해 대비 4배 이상 높아졌다는 점이 미국 수입업자들의 수요를 침체시킨 원인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미국의 태국산 참치캔 총 수입량은 4만 1,746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9% 감소했으나, FOB 기준 수입 가격은 톤당 4,637 달러로 14% 상승했다. 멕시코산 참치캔 수입량은 7,577톤으로 지난해 대비 24% 감소했으나, 3,766톤을 수입한 2019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트럭 운송이 가능한 멕시코산 참치캔은 높은 해상 운임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 수입업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체결된 미국-멕시코 무역 협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산 수입량은 모두 감소했다. 몰디브와 스페인산 수입량만이 증가했으나 미미한 수준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8월 25일자

美, 2021년 상반기 날개다랑어 로인 수입 통계 발표

태국 의존도 감소, 피지모리타니 수입 증가

미국 날개다랑어 로인 수입이 지난해 대비 크게 감소했다.

2021년 상반기 미국 날개다랑어 로인 수입은 2만 4,951톤으로, 2020년 상반기 대비 19% 감소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높아진 사재기 수요가 정상화된 결과이다. FOB 평균 단가는 톤당 5,651 달러로 5% 상승했다.

태국산 로인 수입량은 7,190톤으로, 지난해 대비 40% 감소했다. FOB평균 단가는 톤당 5,464 달러로 19% 하락했다.

피지산 로인 수입량은 5,130톤으로 지난해 대비

17% 증가했다. Bumble Bee와 PAFCO간 독점 공급계약 체결로 인해, 피지산 날개다랑어 로인의 대부분이 Bumble Bee 가공공장으로 향한 것이 원인으로 보여진다.

모리타니산 수입량은 3,016톤으로 지난해 대비 23% 증가해 지난해의 하락폭을 만회했다. 베트남산 수입량은 지난해 대비 59% 증가한 4,082톤을 기록했다. 한편 필리핀과 에콰도르산은 2020년의 급증한 수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수입량이 각각 66%, 79% 감소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8월 27일자



운임료 상승, 끝이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로 인한 항구 폐쇄 조치에 영향

운임료 상승 기조가 계속 이어지며 참치 산업이 계속 고통받고 있다.

중국의 엔텐항은 다시 문을 열었지만 여전히 혼잡한 상태이다. 중국 닝보항은 컨테이너 운송업체 노동자 1명이 8월 11일 코로나19 감염 진단을 받은 후 1주 넘게 부분 폐쇄되었다. 지난 주 41척의 선박이 닝보항에 정박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베트남의 가장 큰 항구인 호치민 깃라이항은 호치민 시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적체 현상으로 약 1주 간 마비된 후 운영을 재개했다.

이러한 항구 폐쇄 영향으로 운임료가 계속 치솟고 있다. 최근 방콕의 한 가공업자는 참치캔 한 컨테이너 미국 운임료가 지난해보다 3~4배 높다고 언급했다.

현재 방콕-미국 운임료는 최소 만 달러로 5온스 참치 캔 48개 한 박스로 보면 약 5달러이다. 지난해에는 약 1달러였다.

컨테이너 플랫폼 Container xChange의 Johannes Schlingmeier 대표는 『추가 폐쇄가 없더라도 정기선 일정 차질과 컨테이너 가용성 문제로 인해 향후 몇 주 동안 컨테이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주요 항구의 20피트 컨테이너 수입 물동량은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다. 아시아와 미국을 잇는 가장 큰 관문인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항이 7월에만 46만 9,360TEU(20피트 컨테이너 1대)를 처리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8월 24일자

ISSF, RFMO에 지원선 모니터링 필요성 제기

'지원선'의 명확한 정의 또한 필요해

국제수산물지속가능재단(ISSF)의 최근 보고서에서, 선망선 어업에서 쓰이는 지원선(support vessel 혹은 auxiliary, supply, tender)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들에게 보존관리조치를 적용할 경우, 지원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만일 보존 조치에서 '어선(fishing vessel)'이라는 표현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이것이 지원선(auxiliary)을 포함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FAD 규제에서, FAD 금지 기간 동안 이러한 선박의 FAD 관련 활동에 대해 어떻게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선(support vessel)은 약

6명의 선원이 운항하는 길이 40~50m 규모 선박이다. 지원선의 주요 작업은 바다에 있는 선망선 dFAD(부유형 FAD)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장치를 배치하고, 손상되거나 오래된 장치를 교체하며, dFAD를 어획 생산성이 더 좋은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ISSF는 지원선에 VMS와 옵서버 감시 범위(전자 감시 포함) 10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운용 중인 지원선 수, 각 지원선이 지원하는 선망선, 지원선이 배치하고 운용하는 FAD 개수, 지원선의 어업 및 FAD 관련 활동 시간 등 상세 데이터 수집 필요성을 주장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8월 27일자



필리핀 중서부태평양 참치 선망선 증가

지원선, 선망선의 2배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 제출된 필리핀 최신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 선망선 척수는 2016년 160척에서 2019년 61척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 73척으로 증가했다. 톤수별로 보면 1,000톤 이상 척수가 2019년 14척에서 2020년 26척으로 증가했다. WCPFC 선박등록부를 확인한 결과, 추가된 선박 중 다수가 이전에 일본 국적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필리핀 국적 지원선이 154척으로 중서부태평양에서 조업하는 국가 선단 중 가장 많다는 점이다. 지원선은 선망선이 더 오래 조업할 수 있게 해주고 더 많은 수의 FAD에 접근할 수 있게 지원한다.

2020년 필리핀 국적 선망선의 참치(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날개다랑어) 어획량은 15만 7,822톤이다. 2019년 10만 1,799톤에 비해 5만 6,023톤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선망선 척수 증가에 의한 것이다. 가다랑어, 황다랑어 어획량이 각각 57%(3만 9,481톤), 61%(1만 7,890톤) 증가했다.

2020년 필리핀의 참치 수출은 13만 5,069톤, 4억 8,900만 달러로 참치캔이 대부분이었다. 2019년에 비해 수출량은 13% 증가했지만 수출액은 2% 증가에 그쳤다.

* 기사출처: Atuna, 2021년 8월 20일자

피지 정부, 어선 업그레이드 보조금 승인 참치 어선 신조 목표

피지 정부는 대출과 보조금을 통해 피지의 수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참치 선단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한다.

Pene Baleinabuli 피지 수산부 장관은 운반 능력과 에너지 효율성이 향상된 어선을 건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피지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 제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피지 선단 어획량은 5년 내 최저이며 2019년 대비 3,000톤 이상 감소한 1만 2,661톤을 기록했다. 주요 어획종은

날개다랑어이다.

피지 주요 가공업체인 PAFCO는 날개다랑어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범블비와 자숙 로인 공급 계약을 체결해 납품하고 있다.

2020년 기준 피지 국적 연승선 척수는 86척으로 2019년 93척에 비해 7척 감소했다. 86척 중 일부 소수의 어선은 외국적 선박을 용선한 것이다. 연승선 중 일부는 1979년에 건조되었다. 피지 국적 선망선은 없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8월 23일자



대만 FCF, PNA 전 영역 대상 MSC 인증 추진

나우루 선단 확장세 주목

대만 참치 무역업체 FCF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관할 내 어업의 새로운 MSC 인증 취득을 위한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인증은 나우루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선망 어업을 포함하며, 나우루 EEZ와 PNA 회원국 전체 수역을 대상으로 한다.

PNA는 자체적인 MSC 인증을 이미 보유 중이다. 해당 인증은 FCF 및 FCF와 거래하는 어선에도 개방되어 있다. 실제로 과거에 FCF는 PNA 인증을 통해 MSC 인증 참치를 공급하기도 했다.

적합성심사기구(CAB)인 SCS Global이 게재한 문서에 따르면, 해당 인증에는 나우루 국적 선망선 FA

D-스쿨조업이 포함된다.

나우루 선단은 최근 들어 적극적인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나우루 국적선은 2017년 한 척도 없었지만 2020년에 14척으로 증가했고, WCPFC 기록에 따르면 현재 총 21척이다. 이로 인해 나우루는 2021년 상반기 방콕에 3만 4,000톤 이상의 원어를 공급하는 최대 공급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SCS 글로벌은 평가 과정이 순조로울 경우, 인증이 승인되는 2022년 6월까지 평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9월 6일자

Tri Marine, FAD 어업 MSC 인증 취득 근접

중서부태평양 기존 인증에 가다랑어·황다랑어 dFAD 추가

미국 Trine Marine사의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와 황다랑어 어업 MSC 인증 취득이 임박해졌다.

해당 인증의 평가를 담당하는 적합성평가기관(CAB)이 최종 초안 문서를 발표한 이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받은 바 없다. 이로 인해 CAB는 MSC에 Tri Marine의 MSC 인증 로고 사용 승인을 권고했다.

이번 평가는 2016년 Tri Marine사가 취득한 인증의 갱신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2016년의 인증

은 스쿨조업만을 포함했고, 이번 인증은 가다랑어와 황다랑어에 대한 부유 FAD(dFAD) 조업도 포함한다. 이로 인해 Tri Marine사도 MSC 인증에 FAD 조업을 포함시키는 최근의 태평양 어업 추세를 따라가게 되었다.

Tri Marine의 평가에는 PNA 관할 수역도 추가되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9월 7일자



日 이토추社, MSC 인증 추진

참치 대기업 개별 MSC 인증 취득 추세에 합류

세계 3위 참치 무역업체인 일본의 이토추상사가 경쟁업체인 대만의 FCF와 미국 Tri Marine의 뒤를 이어, MSC 인증을 추진 중이다.

인증 평가를 진행하는 적합성평가기관(CAB)인 SCS Global Service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인증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관할 공해, 나우루협정당사국(PNA) 전 회원국과 쿡제도의 EEZ를 포함한다.

이토추상사를 비롯한 상당수의 참치 기업들 사이에서, 이미 PNA에서 MSC 인증을 받은 참치를 어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인증 받으려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이토추상사의 이번 인증은 황다랑어와 가다랑어 2개의 평가 단위(UoA)를 포함하고 있다. 이토추상사

는 인증 대상에 쿡제도와 PNA 회원국 EEZ 및 WCPFC 관할 공해에서 조업하는 한국 국적 선망 어업을 선별적으로 포함시켰다. MSC의 새 규정을 감안하면, 평가에는 스킨조업과 부유 FAD(dfAD) 조업 두 유형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 평가에 따르면 이토추상사의 어업은 MSC 인증을 취득하기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나, 확실하게 결론짓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그러나 여러 어업이 같은 수역에서 MSC 인증 취득에 성공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토추상사 또한 취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SCS Global Service는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인증 시기가 2022년 7월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9월 8일자

식물성 대체 참치 시장, 계속 성장할 전망

10년 후 16억 달러까지 확대 예상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식물 기반 참치 대체 식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Abillion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 중 최소 10억 명의 식단을 식물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인 지속가능성 플랫폼이다. 이들은 자사 어플리케이션의 소비자 후기 80만 건을 기반으로 한 「대체 수산물: 기회의 바다」라는 보고서를 출간했다. Abillion에 따르면 수산물 대체 식품 시장은 10년 후 1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와 같은 대체 수산물 시장에

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종은 참치이다. 이는 전통적인 일반 수산물 시장에서도 참치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것과 일치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초부터 Abillion 어플리케이션의 식물성 수산 식품 후기가 9.4배 증가했다. 현재 최대의 대체 수산 식품 소비재 시장은 스페인이다. 소매 식료품(식당에서 판매하는 식료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자 시장의 식료품) 시장의 대체 수산물 소비가 가장 큰 국가이자, 소비자 1인당 대체 수산물 리뷰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9월 9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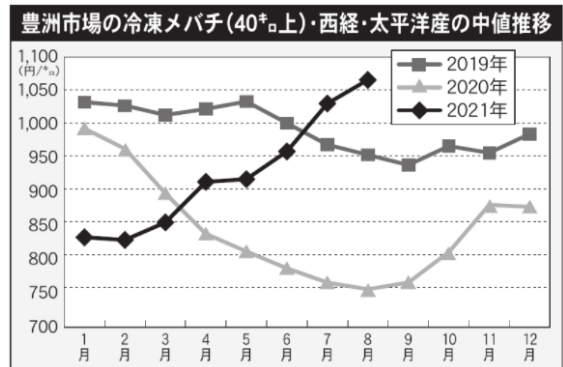


日 도요스시장 8월 냉동 눈다랑어 가격 발표

중간가 kg당 1,066엔...중간, 저가 가격상승 추세

일본 도요스시장 발표에 따르면, 8월 냉동 눈다랑어 대형(40kg 이상) 상장량은 8,958 마리(지난해 동월 대비 33% 감소)로, 3개월 연속 1만 마리 미만을 기록했다. 1월 기록한 7,681마리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가격은 고가 kg당 2,500엔(지난해 동월 대비 25% 하락), 중간가 1,066엔(41% 상승), 저가 850엔(88% 상승)을 기록했다. 중간가가 1,050엔을 넘은 것은 2018년 12월 이후 약 32개월만이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월말 들어 중간가는 1,100엔, 저가는 1,000엔에 근접한 수준으로 전해졌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9월 14일자

마셜제도, 참치 선원 백신 접종에 박차

얀센 접종...8/20부터 주 단위 진행

뉴질랜드 라디오(Radio NZ)에 따르면 마셜제도는 지난 6월부터 선망선과 연승선 선원을 위한 백신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312명 접종 후 외딴 지역에 있는 자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접종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했었다.

마셜제도 해양자원국(MIMRA) Glen Joseph 국장은 8월 20일 선원들을 위한 백신 프로그램이 주 단위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셜제도는 태평양 도서국 중 처음으로 외국인 선원

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백신은 얀센을 사용한다.

백신 접종 절차는 외국적 어선을 대리하는 마셜 소재 대리점이 MIMRA가 개발한 웹 기반 앱으로 입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만 및 보건 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서 정보를 검토하여 요구 사항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면 선원의 백신 접종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마셜제도 정부는 8월 19일 마주로의 한 상업 부두에 백신 운영센터를 설치했다.

* 기사출처: Atuna, 2021년 8월 20일자



네덜란드 P&P, 참치캔 가공 분야 진출 추진

참치캔 기업 보유한 TOG 지분 인수

네덜란드 최대 어업 그룹 Parlevliet & van der Plas(이하 P&P)가 Thnnus Oversea Group(이하 TOG) 지분 인수에 합의해, 참치 분야에서 더욱 큰 기반을 마련했다.

P&P Diederik Parlevliet 대표에 따르면, P&P는 지난 7월 말 TOG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Parlevliet 대표는 구체적인 지분 비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Parlevliet 대표는 자신들이 TOG의 대주주이지만 일상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P&P를 대주주로 둔 참치 생산기업 Compagnie française du thon océanique(이하 CFTO)가 마다가스카르에 위치한 TOG 산하 참치 가공 시설 Conserveries des Cinq Océans(이하 CCO)를 인수한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P&P가 공식 합의는 없었다고 부인한 적이 있었다.

CCO는 파리를 본사로 둔 TOG의 자회사로, 마다가스카르와 코트디부아르에 참치 가공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TOG는 CCO 외에 프랑스 참치 브랜드 Pompon Rouge를 보유하고 있다. CCO는 유럽에 참치캔을 유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Parlevliet 대표는 CFTO 선망선단이 인도와 대서양에 있으며, 이들의 어획물 일부는 아비장과 마다가스카르의 공장으로 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OG는 2016년 CFTO의 대주주가 된 것을 비롯, 지난 수 년 동안 참치 사업 확장 행보를 보이고 있다. CFTO는 지난 달 인도양 가다랑어 어획 MSC 인증을 취득했다. 이를 통해 TOG 산하 가공업체는 프랑스 소매업자에게 공급할 지속가능 참치캔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8월 19일자

타이 유니온, 2022년 대규모 설비투자 계획

최대 1억 8,000만 달러 투자

타이 유니온 그룹이 증가하는 해외 수요 충족을 위해 2022년 최대 60억 바트(1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자본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Thiraphong Chansiri 타이 유니온 회장은 2022년 대체 단백질, 기능 식품, 신기술 등 혁신 추진을 위해 2022년 50~60억 바트의 신규 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설비 프로젝트 투자비용은 총 50억 바트로 예상되며, 이들의 평균적 설비 투자 지출은 40~45억 바트 가량이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1년 8월 25일자



日 연구자, 브라질에서 참다랑어 사라진 원인 분석

생태계 변화일 경우 브라질로 돌아올 가능성 낮아

스즈키 지로 전 일본원양수산연구소 유어자원부장이 대서양 참다랑어의 분포 변화와, 브라질 해역에서 참다랑어가 잡히지 않는 원인에 대해 분석했다.

ICCAT 통계에 따르면 일본 참치 선단은 브라질 해역에서 1957년 30톤, 64년에 무려 8,000톤의 참다랑어를 어획했으나 60년대 후반부터 갑작스럽게 어획량이 제로(0)가 되었다.

스즈키 전 부장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①현재 자원 회복 중이나 아직 과거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했거나 ②참다랑어의 생태 또는 생태계 변화로 인해, 참다랑어가 브라질 해역으로 회유하지 않게 되었거나 ③어획량 규제를 피하기 위해 어획해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세 가지 가설을 세웠으나, ③의 경우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일축했다.

①의 경우, 브라질에서 참다랑어가 어획되던 시기의 자원 평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논의는 불가능

하다. 그러나 서부 대서양 참치 자원 평가 중 해당 시기를 포함한 자료는 당시가 현재보다 훨씬 자원량이 풍부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 해역에서 어획된 참다랑어는 체장 250cm 이상의 대형 고령어이기 때문에, 자원 회복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시간이 더 걸려야 할 수도 있다. 현재 동, 서부 대서양의 자원 회복 상태는 양호하기 때문에, 미래에 브라질 해역에서도 참다랑어가 분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②의 경우, 최근 자료에서 노르웨이 해역 등 과거 참다랑어가 분포한 해역에 다시 어획된 보고는 있지만, 브라질 해역이나 남반구 회유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스즈키 전 부장은 참다랑어가 환경 적응이 비교적 뛰어난 종이기 때문에, 산란이나 수온 등의 문제로 생태 자체가 변했을 경우, 브라질로 회유할 가능성은 낮다고 시사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8월 17일자

참다랑어, 50년 만에 덴마크 해역 돌아와

원인규명 위해 모니터링 진행

덴마크 국립수산자원연구원은 지난 8월 23일 덴마크 Skagen에서 참다랑어의 이동 및 성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표지방류 작업을 진행했다. Frederik 덴마크 왕세자, Rasmus Prehn 덴마크 수산부 장관이 해당 작업을 참관했다.

연구원들은 움직임을 매핑할 수 있는 송신기를 참다랑어에 표지방류한 후, 다시 덴마크 해역으로 돌려보냈다. 덴마크에서 2017년 표지방류된 참다

랑어는 4마리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117마리로 급증했다.

참다랑어는 본래 덴마크 해역을 회유했으나 1960년대에 갑자기 사라졌다. 과학자들도 이에 대해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과학자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덴마크 해역에서 참다랑어가 다시 증가한 원인 규명을 시도하고 있다.

* 기사 출처: CGTN, tv2nord.dk, 2021년 8월 24일자



日 기업, 참치로 만든 칩 제품 출시

참치 함유율 70%...중성지방 저하 효과

일본 수산가공식품기업 (유)아지젠(味源)사가 지난 8월 30일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는 기능성 스낵 「TUNACHi」를 출시했다.

참치를 70% 함유한 '차세대 칩'을 표방한 해당 제품은 EPA와 DH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혈중 중성지방 저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참치의 머리, 꼬리, 뼈, 내장 이외의 모든 부위를 다져서 몽친 후 그대로 튀겨서 만들었고, 보존료나 착색료는 첨가하지 않았다. 스낵을 먹고 싶지만 건강을 염려하는 중년 세대를 중심으로, 손쉽게 생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상품을 지향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9월 2일자

日 기업, 참치 토로 가공식품 출시

날개다랑어 토로 가공 제품, 황다랑어 직화구이 등

일본 수산 가공식품 기업 하고로모푸드(はごろもフーズ)가 8월 23일, 신제품 「씨 치킨 토로(シーチキンとろ)」와 「씨 치킨 구운 토로(シーチキン炙りとろ)」를 출시했다.

참치 전체에서 1%밖에 없는 토로를 올리브 오일 절임으로 가공해 수작업으로 포장한 제품이다. 평소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먹거리를 원하는 고객층을 겨냥했다.

「씨 치킨 토로」는 날개다랑어를 사용했고, 「씨 치킨 구운 토로」는 황다랑어를 직화로 구워 낸 제품이다. 내용량 37g, 유통기한 37개월, 참고 소매가는 개당 500 엔(세금 별도)이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8월 24일자



스페인 선단, 인도양 황다랑어 쿼터 공유 허가 받아 쿼터 소진 불가 우려로 인해 예외적 허용

인도양에서 조업하는 스페인 선단이 2년 연속으로 참치 쿼터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어선에 배정된 쿼터를 전부 소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선주들의 우려로 인해 스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어선이 항구에 격리되거나 기타 규제 조치를 받게 되면서 조업이 줄어들고 있다. 인도양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모든 선망선은 선원 격리 조치로 인해 항구에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로 인해 우려가 높아진 스페인 선주들은 당국에

참치 쿼터 공동 관리의 예외적 허용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지난해 스페인 선단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해당 예외적 허용을 제공받은 적이 있다.

스페인의 2021년 인도양 참치 쿼터는 15만 2,000톤이다. 해당 쿼터는 통상적인 경우 어선별로 배정되며 공유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특정한 예외적 상황의 경우, 동일한 선주의 어선이 아니더라도 어선 간에 쿼터를 교환할 수 있다. 스페인 당국은 선망선 15척이 해당 신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9월 6일자

파푸아뉴기니 Frabelle 가공 공장 화재 시설 20% 손실...핵심 시설 피해 적어

파푸아뉴기니 Lae에 위치한 Frabelle Group 산하 참치 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부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Francisco Tiu Laurel Jr. Frabelle 회장에 따르면 화재는 9월 2일 오후 4시 45분경 발생해 45분 만에 진화되었다. 공장의 약 20%가 불에 탔지만 태양 전지판 시스템 외에 주요 장비 손상은 없었다.

Laurel 회장은「참치캔과 냉동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 구역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이다」라고 설명했다. Laurel 회장은 참치캔 가공 시설은 10월 15일경에 재가동될 것

로 예상하나, 전체 공장은 2022년 1월 초가 되어야 완전히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Frabelle은 현재 지역 소방서와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해당 공장은 1일 냉동 로인 60톤, 참치캔 80톤 생산 능력을 갖췄으며, 총 1,700명의 인원이 근무한다.

Frabelle 공장 생산량 감소는 EU 참치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파푸아뉴기니에는 해당 공장 외에도 5개의 참치캔 가공 공장이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9월 2일자



포클랜드 집행위, ITQ B 의회 상정 동의 통과되면 올해 말부터 라이선스 신청 시작

포클랜드 집행위원회(ExCo)는 8월 25일 2021 수산업(보존 및 관리)(개정) 법안의 9월 포클랜드 의회 상정을 승인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정된 ITQ(양도성개별할당제) 계획(ITQ B)'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라이선스는 2023년 1월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기존 ITQ 보유자의 권한은 2031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권한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은 2031년까지 계속 조업할 수 있다. 새로운 ITQ B(25년 유지)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아래와 같은 주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신청자는 어업 회사의 지분을 최소 51% 소유하거나 자체적으로 어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증거 제공
- 각 회사는 조업 계획(milestones), 목표를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실행 계획은 포클랜드 제도 정부(FIG)와 포클랜드 제도 어업 협회(FIFCA)

가 체결한 수산업 합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ITQ B에 따라 주어진 어업 권한은 ITQ B 적격 회사만 보유할 수 있다. 적격 회사의 이사진은 회사보다 앞서 각종 문제에 대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포클랜드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의 자격을 갖추고 포클랜드에 통상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적격 회사는 FIFCA의 회원이어야 하며 FIG-FIFCA 수산업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ITQ B에 근거한 어업 권한을 이용할 목적으로 적격 회사가 추진한 모든 종류의 용선 계약은 FIG에 승인받아야 한다.

해당 법안이 9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1년 말부터 ITQ B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2023년 1월부터 새 라이선스에 근거한 조업이 시작된다.

* 기사 출처: MercoPress, 2021년 8월 26일자

아르헨티나 6월 수산물 수출 통계 발표 전반적 증가했으나 일렉스 오징어 감소

아르헨티나 농림축산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2021년 6월 총 4만 1,613톤의 수산물을 수출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수출량, 수출액은 각각 20%, 87% 증가했다.

민대구 수출량은 8,993톤으로 지난해 대비 30% 증가했고, 수출액은 2,040만 달러로 36% 증가했다. 평균 단가는 톤당 2,267 달러로 5% 상승했다.

그러나 일렉스 오징어의 경우, 수출량은 1만 561톤으로 지난해 대비 48% 감소했고, 수출액은 2,170만 달러로 50% 감소했다. 평균 단가는 톤당

2,055톤으로 23% 하락했다.

국가별로 분석 결과, 아르헨티나의 최대 수출국은 스페인이었다. 아르헨티나 전체 수산물 수출의 21%를 차지한 스페인의 수출량은 8,258톤(132% 증가), 수출액은 4,940만 달러(256% 증가)이다.

수출 2위 미국의 수출량은 4,296톤(47% 상승), 수출액 2,100만 달러(44% 증가)이다. 수출 3위 이탈리아의 수출량은 2,859톤(102% 증가), 수출액 1,870만 달러(228% 증가)를 기록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1년 8월 23일자



러시아 8월 30일 ~ 9월 5일 어가 약세 유지

명태 현물 가격 kg당 60~75 루블

러시아의 2021년 35주차(8월 30일~9월 5일) 냉동 수산물 가격은 대체로 약세를 유지했다.

러시아 극동지역 태평양 대구 현물 가격은 kg당 155~165 루블로 지난주 가격인 kg당 160~165 루블에서 소폭 하락했다.

명태 현물 가격은 지난주 가격인 kg당 65~75 루블에서 소폭 하락한 kg당 60~75 루블을 기록했다.

태평양 청어 현물 가격은 지난주 kg당 50~69 루블이었으나 금주 kg당 50~65 루블을 기록했다.

북서지역 대구 현물 가격은 kg당 200~210 루블로 지난주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해덕대구와 청어 현물 가격은 각각 kg당 135~145 루블, 70~110 루블로 마찬가지로 지난주 수준을 유지했다.

중부지역 대서양 청어, 명태, 고등어 현물 가격은 각각 kg당 100~125 루블, 80~100 루블, 145~155 루블로 지난주 수준을 유지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1년 9월 10일자



러시아 수산청, 명태 출고 촉진 회의 개최

극동 냉동 창고 수용량 90% 채워져...운송 보조금, kg당 6루블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러시아 수산청은 최근 Ilya Shestakov 수산청장 주재로 극동지방 명태 출고 촉진을 위한 철도 물류비 지원 온라인 회의를 개최했다.

Shestakov 청장은 현재 극동지방 냉동 창고 수용량이 90% 정도 채워졌고, 태평양 연어송어 성어 기이기 때문에, 냉동 저장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Shestakov 청장은 어업 관계자들과 물류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올해 러시아 수산업계의 수산물 생산량은 8월 17

일 기준 330만톤이다. 이 중 명태는 126만톤으로 약 40%를 차지한다. 러시아의 수산물 수출량은 80만 5,500톤이다. 명태 수출량은 35만 7,800톤으로, 전체 수산물 수출량 중 40% 이상을 명태가 차지했다.

명태 제품 수출은 중국 수입 규제에 인해 지난해 동기 대비 35% 감소했다. 러시아 극동 지방에서 중앙부로 가는 철도 물류비는 kg당 70 루블로, 이 중 약 8.5%인 6 루블이 보조금으로 결정되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8월 24일자



日 계맛살 등 연육 시장 규모, 6% 성장

연육 단백질 근육 증강 효과 관심 받아

일본 연육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일본 시장조사 기업 후지경제(富士經濟)에 따르면, 2020년 일본 연육 시장 규모는 지난해 대비 6.3% 성장한 441억 엔이 될 전망이다. 판매량은 1.9% 증가한 6만 9,500 톤이다.

후지경제는 연육에 포함된 단백질이 근육 증강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정 내 연육 섭취 빈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후지경제는 시판용 제품을 중심으로 2021년 연육 수요가 증가해 판매액 및 판매량이 각각 1.8%, 2.3%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육 제품 중에서는 계맛살이 전체 판매액의 95%를 차지했다. 2018년 일본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연육에 포함된 단백질의 근육 증강 효과를 다루면서 큰 주목을 끌어 판매량이 증가했다. 연육 제품은 2019년

이후로도 TV에 소개되는 등 높은 관심을 유지했고, 신상품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투입되면서 매출 확대도 이어졌다.

매장용 제품 수요는 코로나로 인해 회전초밥이나 테이크아웃 초밥 시장이 부진하면서 감소했다. 시판용 제품은 즉석 식품에 더해 끓여서 먹는 신상품도 발매했고, 드러그스토어 납품과 내점 객수도 증가하는 등 호조 추이를 보였다.

후지경제는 「매장용 제품의 비율이 높지만 건강 붐에 힘입어 시판용이 성장하고 있다」며 「대기업 메이커의 신상품으로 인해 스포츠, 아웃도어 수요도 기대된다」라고 분석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9월 7일자

러시아 PCA, 명태 어업 MSC 인증 취득

북쿠릴~페트로파블로스크 대상으로 약 18만 6,100톤

러시아 명태어업자협회(PCA)가 러시아 북쿠릴 및 페트로파블로스크-코만도르스크 조업구역에서 총 18만 6,100톤의 흰살생선 어업 MSC 인증을 취득했다.

MSC는 지난 9월 3일 북쿠릴 및 페트로파블로스크-코만도르스크 조업구역의 러시아 동캄차카 명태 트롤어업이 지속가능하며 잘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인증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의 첫 명태 어업 지속가능 인증인 오호츠크해 인증은 2008년에 시작해 2013년에 끝났으나, PCA에 따르면 이번 인증 취득 과정은 단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러시아는 2021년 3월 동사할린 명태 어업 MSC 인증을 취득했고, 7월에는 서베링해 명태 어업 인증을 취득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9월 8일자

국제 연육 시장, 여전히 공급난 겪는 중 미국 필릿 부족, 중국·동남아 락다운 원인

연육 공급 회사이자 분석 그룹인 Future Seafood의 설립자 Pascal Guennegues에 따르면, B시즌 명태 연육 생산량이 회복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정도로 전망된다.

Guennegues는 2021년 알래스카 명태 연육 생산량을 지난해 대비 5,000~1만톤 증가한 약 19만톤으로 예상했다.

아시아 지역의 열대어 연육 생산은 공급 문제를 완화시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Guennegues는 최근 수년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연육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급감한 것은 코로나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Guennegues는 중국의 2021년 연육 생산과 소비가 급증했지만, 중국의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냉동식품 수입 규제 강화가 시장 성장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인도의 2021년 상반기 연육 생산·수출은 2020년 상반기와 비슷하나 여전히 이전에 비하면 크게 감소했다. 인도는 수년간 파업 및 어획량 감소의 영향을 받아 왔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연육 생산량 또한 봄 이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부진한 상태이다.

베트남은 2020년 연육 수출 18만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 1~7월 수출량은 지난해 대비 9만 9,000톤을 기록해 세계적인 연육 공급국가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Guennegues는 베트남 델타변이 확산으로 인해 공장 상당수가 폐쇄되거나 일부만 가동 중이고, 이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내년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9월 3일자

알래스카 명태 PBO 생산량, 40% 감소 B시즌 생산량 증가했으나 가용성 문제 우려

8월 15일 기준 알래스카 명태 PBO(가시 제거) 필릿 블록 B시즌 생산량은 3만 2,300톤으로, A시즌 생산량인 2만 8,700톤보다 나아졌다. 그러나 올해 A, B시즌 생산량 총합인 6만 1,000톤은 지난해 동기 10만 2,339톤에 비해 40% 감소했다.

미국 해양대기청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베링해 명태 47만 9,343톤이 어획되었다.

한 현지 소식통은 어획 상황은 좋은 편이지만 어획물의 상당수가 어린 개체이기 때문에, 어획량과

가공 제품 생산 종류에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식통은 현재의 명태 공급 문제가 올해 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소식통은 현재 시장 상황이 좋고 수요가 높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글로벌 해운 위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산 제품의 공급 문제가 가을로 접어들면서 북미, 유럽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라 전망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1년 8월 25일자



알래스카 명태 공급, '존스법'으로 인해 위기 공급업체 벌금 부과로 수산물 운송 중단 상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명태 어업 회사 American Seafood사와 자회사인 ARM사, 해당 기업 공급망 관련 업체인 KIF사 등 다수의 기업에 존스법(Jones Act) 위반으로 약 3억 5,000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해, 미국 알래스카 명태 공급이 위기에 처했다.

ARM사와 KIF사 등 벌금을 부과받은 회사들의 성명에 따르면 최근 CBP는 알래스카 해산물을 캐나다 New Brunswick의 Bayside 항구로 수확, 가공, 저장 및 운송하는 회사에 어떠한 경고나 설명도 없이 존스법 위반으로 처벌 통지서를 발행했다.

존스법은 미국 항구를 오가며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이 반드시 미국인에 의해 소유·등록·건조, 운항되어야 한다는 법이다.

American Seafood사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다른 주와 육지에서 맞닿는 곳이 없는 알래스카 주의 특성으로 인해 존스법에는 알래스카에서 상품을 운송하는 회사에 제한된 면제 허용 예외조항이 있다.

자신들은 이 예외조항에 근거해 명태를 알래스카 Dutch Harbor에서 외국 건조 또는 외국인 소유 부정기선에 적재한 다음 파나마 운하를 통해 캐나다 New Brunswick의 Bayside으로 운송했다고 주장한다. 명태는 이후 캐나다 Brunswick에서 철도에 실려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운송된다.

현재 New Brunswick의 냉동창고에는 수많은 제품이 발이 묶인 채 보관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일본 수산회사의 자회사인 Gorton's 등 미국 동부 연안 2차 가공업체들에 대한 제품 공급이 위기에 처했다.

ARM사와 KIF사는 현재 앵커리지의 지방 법원에 임시 금지 명령 및 예비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명령 구제 요청에 대한 긴급 심리를 제기해 승인받았다. 9월 17일 해당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Intrafish, Undercurrent News, 2021년 9월 2-5일자

RFC, 러시아 국내 명태 공급 새 계약 체결 연간 최소 1만톤 규모

러시아 RFC사가 러시아 수산물가공시설 1호(ROK-1)와 연간 최소 1만톤 규모의 장기 명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2023년부터 시작된다.

글로벌수산포럼(Global Fishery Forum)에서 체결된 이번 계약은 '명태 필렛으로 만든 제품을 러시아 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ROK-16은 야채, 결들임 요리, 소스 등을 추가한 반조리식품, 즉석식품과 애완동물용 제품 등의 제품 라인도 개발할 계획이다.

ROK-1은 연간 6만톤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1년 9월 10일자



日 어묵 기업 출시한 어묵 단백질 바 주목

개당 15g 단백질 함유...간식, 단백질 섭취 목적 적합

일본 수산가공식품 기업 「스즈히로어묵」이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나가토모 유토, 나가토모의 전속 요리사 카토 타츠야와 협업해 개발한 어묵 단백질 바 「피시 프로틴 바 도전.어묵(フィッシュプロテインバー挑・蒲鉾)」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제품은 나가토모 선수가 5년 전부터 도입한 지방 적응 식단에서 착안해, 천연 재료 사용, 화학 조미료·보존료 미첨가, 약 7마리의 생선을 사용한 고단백 어묵을 사용한다는 아이디어에 의해 개발되었다.

해당 제품은 쇠고기·유제품 등에 비해 지방이 적은 양질의 단백질이 15g 함유되어 있으며, 사람의 체 내에서 합성할 수 없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첨가

되어 있다. 또한 소화율이 높기 때문에 간편식에 적합하고, 운동 후 근력 향상을 위한 단백질 섭취용으로도 적합하다. 비닐 포장을 열어 그대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칼이나 접시를 쓸 필요도 없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8월 30일자

日 기업, 당분 절반 줄인 고단백 어묵게맛살 출시

당질 50% 뺀 고단백 식품으로 소비자 트렌드 맞춰

일본 수산가공식품 기업 이치마사 어묵(一正蒲鉾株式会社)사가 지난 9월 1일 신제품 시리즈인 '고단백&당질 50% 오프' 게맛살과 어묵 제품을 출시했다.

두 제품은 해당 회사의 기존 게맛살, 어묵 제품 대비 단백질 배합을 늘리고, 당질을 반으로 줄였다. 녹말, 설탕, 감미료의 배합을 통해 당질 50% 절감을 실현시켰다. 해당 회사는 '저당 식품은 맛이 없다'라는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맛에도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회사에 따르면 현재 당뇨병 등 질병 예방이나 다이어트를 위해 당질을 억제한 식품 발매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다이어트 후 요요현상 방지나 노화로 인해 감퇴되는 근육 유지를 위한 단백질 섭취가 전 세대에 걸쳐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 식품 시장도 성장 추세이다. 해당 회사는 이러한 트렌드에 근거하여, 연육 제품의 장점인 양질의 어묵 단백질 식품군과 당질 억제제를 조합해 해당 제품군의 연구개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9월 2일자



日 공치 어획, 지난해보다 개선됐으나 여전히 적은 편

어획량 2019년 동월 대비 7% 감소...kg당 약 1,200엔

올해 일본 공치 조업은 예년보다 약 1개월 늦은 8월 중하순에 첫 어획물이 양륙되었다. 일본 어업정보서비스센터(JAFIC)에 따르면, 8월 양륙량은 약 850톤으로 심각한 흉어였던 지난해 동월의 5배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2019년 동월 대비 7% 감소한 수치로, 여전히 그리 좋지 못하다.

9월 들어서도 어획량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다. 일본 홋카이도 하나사키항의 9월 6일 양륙량은 대형선 9척 57톤으로, 톤당 평균 10톤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JAFIC에 따르면 현재 어장은 일본 홋카이도 노삿푸곶(納沙布岬)에서 약 1,000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이번 어기는 9월부터 러시아 200해리 내 조업이 시작되나, 어군을 발견하지 못해 조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공해 공치 조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9월 5일 저녁 현지 집계에 따르면 어획량이 많은 어선도 10톤 정도이고, 대부분이 1톤 내외, 100kg 미만인 어선도 있다고 전해졌다. 공해에서는 타국 어선도 조업 중이지만 마찬가지로 어군 탐색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어체는 마른 개체가 많은 편으로, 6일 하나사키항에 양륙된 공치 어획물은 대부분 100g대였고, 93g대, 110g대가 그 다음이었다.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도쿄 도요스 시장의 거래 가격은 하락했다. 8월 30일 도매 가격은 130g 제품이 kg당 1,200 엔 전후로, 지난해 대비 20% 하락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9월 7일자,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9월 7일자

러시아, 공치 어업 단속규칙 다시 강화

日 9월 봉수망 어업 재개 앞두고 불편 겪어

러시아 측은 이번 어기부터 공치봉수망 어선의 러시아 수역 조업 단속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전망이다. 또한 공해를 오가며 러시아 수역을 통과하는 허가 어선에도 해상 체크포인트 통과를 의무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일본 전국공치봉수망어업협동조합(이하 공치어협)은 2014년까지 일-러 양국 간 의정서에 따라, 러시아 감독관을 승선시킨 감독관선 3척을 용선하여 조업했다. 그러나 2015년 이후로 감독관선 용선 대신 러시아 측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수속이 간소화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단속 규칙

강화가 부활한 것이다.

또한 공해에서 조업하기 위해 러시아 수역 내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 러시아 수역에 입역하기 8시간 전까지 무해통행 통보를 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올해부터 통보만이 아니라 체크포인트 통과 또한 요구하고 있다.

위의 내용은 러시아 조업허가가 발효되는 9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주 어장이 공해에 있어, 귀환 시 일부러 체크포인트를 통과하거나 러시아 수역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가중된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8월 27일자



오메가3 수치 높으면 기대수명 5년 증가

혈중 오메가3 수치-수명 관계 연구

오메가3 지방산에 다양한 건강상 이점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새로운 연구에서 추가로 오메가3와 장수의 연관성이 발견됐다.

65세 이상 사람들의 경우 혈중 오메가3 수치가 높으면 기대 수명의 연장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 이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텔마르 의료연구소(IMIM)와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의 지방산연구소(FARI)의 공동 연구로 미국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11년 동안 2,240명을 추적하고 이들의 혈중 오메가3 수치를 분석했다. 참여자들은 4그룹으로 나뉘었다. 흡연하지 않고 오메가3 수치가 높은 그룹, 담배를 피우고 오메가3 수치가 높은 그룹, 흡연하지 않고 오메가3 수치가 낮은 그룹, 담배를 피우고 오메가3 수치가 낮은 그룹이다.

분석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고 혈중 오메가3 수치가 높은 그룹의 생존 추정치가 가장 높았다. 담배를 피우고 오메가3 수치가 높은 그룹과 담배를 피우지 않고

오메가3 수치가 낮은 그룹은 생존 추정치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담배를 피우고 혈중 오메가3 수치가 낮은 그룹의 생존 추정치는 가장 낮았다.

IMIM 심혈관 위험 및 영양 연구 그룹의 알렉스 살라-빌라 박사는 『식단에 정기적으로 기름진 생선을 포함해 혈중 오메가3 지방산의 수치가 높아지면 기대 수명이 거의 5년 증가한다』고 밝혔다.

공동 저자인 FARI 윌리엄 S 해리스 회장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콜레스테롤 혈압 등 건강에 위험 요소들을 다루면서 오메가3 수치를 올리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오메가3 지수를 아는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을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 생선을 더 섭취하거나 보충제를 복용하는 등 오메가3 지수를 '개선'하는 것은 혈압 등 다른 위험 요인의 치료법보다 훨씬 쉽고 저렴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 기사 출처: Medical News Today, 2021년 7월 27일자

인도양, 해적행위 고위험지대 축소

9/1부터 예멘·소말리아 EEZ 접경서 고위험지대 축소 예정

인도양 해적행위 감소로 인해, 고위험지대(HRA)로 분류되던 해역의 지리적 경계에 변동이 발생했다.

국제해운회의소(ICS)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예멘·소말리아 EEZ 남동부 접경지대의 HRA 경계선

은 9월 1일부터 축소·조정될 예정이다. 그 외의 해당 지역 안전 개선 방안은 2022년 1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8월 26일자



러시아, 남극 크릴새우 어업 계획 추진

'30년까지 트롤 가공선 5척, 연 12만 톤 공급 목표

러시아 정부는 최근 2030년까지의 자국 어업 발전 전략에 근거한 남극 어업 관련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 해당 계획에는 남극 수역 자원 조사를 위한 과학 조사선 건조, 현대화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 수산청은 남극 크릴새우 조업허가 취급 방침 입안을 시작했다.

어업발전 전략에는 2025~2030년 남극 크릴새우 조업을 위해 최대 5척의 냉동가공 슈퍼트롤선과 3척의 냉동운반선 건조가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는 연간 최소 60만톤을 어획, 제품 12만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1980년대 크릴새우 어선 프로젝트를 시작해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초반 남극 해역에서 연간 36만톤을 어획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프로젝트의 어선은 대부분 해외로 진출되거나, 대규모 수리·현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노르웨이, 중국 어선의 데이터에 근거해, 연간 조업일수 235일, 1항차당 평균 어획량 약 10만톤으로 하는 단계적인 5개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민스, 피시밀, 오일 생산 비율에 따라 1억 7,000만 달러~3억 달러 범위의 제품 총액 견적을 냈다.

현재 크릴새우 자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노르웨이이며, 중국도 현대화 어선을 투입해 어획 노력량을 상승시키려 하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 남극 크릴새우의 자원량은 1억 2,500만톤으로 산정되었다. 노르웨이, 중국 양국의 연간 어획량은 60만톤이나, 200만톤을 더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8월 25일자

트롤 전개판 기술 진화

현재 간단하게 선상 조작 가능, 머지않아 완전 조작 가능할 듯

Thyborøn Trawldoor사는 Type 32 Bluestream 원양 트롤 전개판을 출시했다.

Type 32는 이전 제품과 동일한 Bluestream 기술을 사용하지만 개량을 통해 그물 전개가 더 좋아졌다.

Type 32는 각 전개판의 상단 및 하단 포일(foil) 부분을 조작 가능해 전개판을 제어할 수 있다. 제품에는 수동과 유압식 두 개 버전이 있다.

조작은 전개판이 갤로스(gallows)에 매달려 있는 동안 각 문에 장착된 소형 유압 펌프로 이루어진다. 소형 핸드 펌프를 사용해 몇 번의 펌프질로 어업 유형에 맞게 조작할 수 있다.

원격 제어 관련 더 많은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머지않아 완전 제어가 가능한 제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1년 8월 30일자



Young's Seafood 어린이 타겟 제품 출시

피쉬 파이, 피쉬 앤 칩 형태 식품

Young's Seafood는 어린이 식품 브랜드 Annabel Karmel과 협력하여 '치즈 피쉬 파이(Cheesy Fish Pie)', '피쉬 앤 칩 모양(Fish and Chip Shapes)' 제품을 출시했다.

5세 미만 유아를 타겟으로 만든 신제품은 9월 2일부터 영국 전역에 출시된다.

'치즈 피쉬 파이'는 대서양 대구와 연어 필렛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품에는 옥수수, 고구마, 으깬 당근도 들어있다.

'피쉬 앤 칩스' 모양은 명태, 완두콩, 당근, 으깬 감자에 빵가루 튀김옷을 입혀서 만들었다.

200g 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은 1.75 파운드(2.4 달러)이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8월 30일자

日 마루하니치로, 세포배양 어육 생산 추진

대량생산 상업화 목표

일본 수산기업 마루하니치로는 지난 8월 18일, 어류 세포 대량 배양을 통한 식품 생산을 위해, 세포 배양 스타트업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 추진을 발표했다. 육류 연구 실적이 있는 기업과 연계해, 가장 빠른 차세대 생선 단백질의 상업화를 실현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다.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기업은 일본 세포 배양 스타트업 '인테그리컬처(IntegriCulture Inc.)'이다. 해당 기업은 배양 비용 절감과 배양 세포 대규모화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인테그리컬처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식품 등급

배양액과 범용 대규모 세포 배양 시스템은 현재까지 소나 가금류의 세포에서 유효성이 확인되었으나, 아직 상품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연구는 어류 세포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로, 마루하니치로가 양식하는 어류를 사용해 검증할 예정이다.

기초 연구부터 응용 연구까지 최소 4년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나, 마루하니치로와 인테그리컬처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상업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 목표』라며 의욕을 드러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8월 19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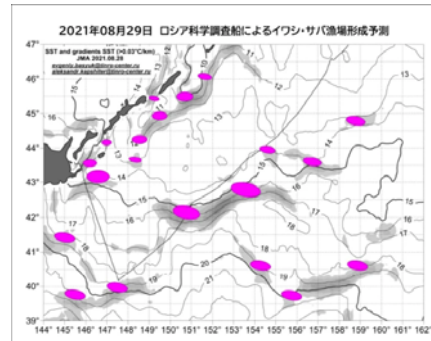


러시아 과학연구기관, 정어리·고등어 어장 형성 예측 한국, 대만, 중국 등 약 80척 낚치 공해 조업 중

러시아 과학연구기관은 8월 29일 보고서를 통해 아래 지도와 같은 정어리·고등어 어장 형성 예측을 발표했다.

해당 기관은 또한 중국 어선으로 추측되는 100여 척의 외국 선단이 북태평양 공해 부근 러시아 EEZ 경계선에 도착해 정어리·고등어를 대상으로 한 어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해당 경계선 동쪽에 위치한 수역의 공해 부근에서는 한국, 대만, 중국 등 약 80척의 외국 선단이 낚치 조업을 하고 있다.



* 기사 출처: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 2021년 8월 30일자

노르웨이 고등어, 역대 최다 주간 어획량 기록 8월 23~29일 동안 6만톤 이상 양륙

노르웨이의 전자 경매 회사인 Norges Sildesalgslag에 따르면, 노르웨이 어업자들이 2021년 34주(8월 23~29일)에 노르웨이 고등어 주간 어획량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해당 기간 동안 고등어 어획량은 6만톤 이상이다. 이전의 기록은 2011년 37주에 기록한 5만 4,500톤이다. 총 139척의 어선이 조업했으며, 이 중 대형선 어획량은 4만 8,000톤에 달한다.

기록적인 어획량으로 인해 가공 업체는 어획물 처치 곤란 상태에 빠졌고, 이로 인해 어업자들은 조업 속도를 늦추라는 권고를 받기도 했다. Sildesalgslag에 따르면 이러한 어획량으로 인해

고등어 쿼터가 곧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쿼터 30만 4,648톤 중 14만 3,000톤이 어획되었다. 선단의 목표 어획량은 쿼터의 90%인 27만 5,000톤으로, 현재 절반 이상 어획한 셈이다.

Sildesalgslag에 따르면 8월 31일 어획량은 그리 좋지 못했다. 이로 인해 고등어가 노르웨이 수역과 공해 수역을 떠나 서쪽으로 이동했고, 고등어 어획 시즌이 곧 끝날 수도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지난해 고등어 시즌은 9월 초에 종료되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1년 9월 3일자



Aker Biomarine "크릴 어획량 1/3 감소"

크릴 3만 8,500톤 어획...크릴 자원량은 증가

노르웨이 크릴 어업 회사 Aker Biomarine은 현재까지 크릴 어획량이 지난해 대비 1/3 감소한 실망스런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남극 크릴 어업 시즌은 매년 12월에 시작해 10개월간 지속되기 때문에, 올해 시즌은 곧 끝날 시기가 다가온다. 현재까지 Aker의 크릴 어선인 Lysaker호는 크릴 3만 8,500톤을 어획했다(4/4분기 미포함).

Aker는 8~9월 동안 48.3해구의 크릴 조업 효율이 낮았고, 48.2해구의 빙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이 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2021년의 조업 일수는 지난해 대비 18% 감소했다.

이는 지난 8년간 가장 적은 수치이다. Aker는 크릴 탐색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크릴 자원량은 지난 20년 동안 약 17% 증가했다며 현재 건전한 상태라고 말했다.

Aker는 어획량 감소가 올해 회사의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 4분기 어획량에 따라 연간 크릴 총생산량은 4만~4만 5,000톤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해 Aker는 수익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인 EBITDA 기준 15~17%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1년 9월 10일자

아르헨티나 4개사, 이빨고기 MSC 인증 추진

2025년까지 인증 취득 목표

아르헨티나 4개 업체가 2025년 3월까지 이빨고기 어업에 대한 해양관리위원회(MSC) 인증 취득을 위해 어업 개선 프로젝트(FIP)를 시행 중이다.

FIP 과정에 추적 데이터베이스 및 도구를 제공하는 기관인 FisheryProgress에 따르면, Estremar, Nueva Pescanova, Pesantar, San Arawa 4개 업체는 중남미 NGO인 CeDePesca의 기술 지원을 받아 FIP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

CeDePesca FIP 책임자 Angel Dias는 『MSC 기준에 따라 해당 어업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 결과, 인증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어장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CeDePesca

의 역할은 이러한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 계획 수립과, 파트너사와 함께 계획 실행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계획에는 연구 담당 기관 또는 어업 당국과의 회의, 연구, 발견된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 수집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아르헨티나 이빨고기 어장은 TAC와 함께, 아르헨티나 어업연방평의회(Argentina's Fisheries Federal Council)가 배분하는 개별 양도 가능 쿼터의 적용을 받는다. 연구 및 자원 평가는 아르헨티나 국립해양수산물공사(INIDEP)가 수행한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9월 10일자



바다2

정 지 용

바다는 뽀뽀이
달어날라고 했다.

푸른 도마뱀 떼같이
재재발렸다.

꼬리가 이루
잡히지 않았다.

흰 발톱에 찢긴
산호(珊瑚)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

가까스루 몰아다 부치고
변죽을 둘러 손질하여 물기를 시켰다.

이 엘썬 해도(海圖)에
손을 씻고 떼었다.

찰찰 넘치도록
돌돌 굴르도록
회동그란히 바쳐 들었다!

지구(地球)는 연(蓮)잎인 양 움으라들고..... 펴고.....





경쟁력 있는 원양 중견·강소기업 키운다

신조·개조 및 간편식 개발 지원 등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해양수산부는 경쟁력 있는 중견·강소 원양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선 신조·개조와 원양 수산물 간편식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15일(수)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원양 중견·강소 원양기업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현재 3.7조의 매출액을 2026년까지 4조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① 안전·책임 강화〉 안전성 개선, 정부펀드·민간 금융 지원으로 신조 확대)

먼저, 국제 어선안전협약인 케이프타운협정 내용이 반영되고 자동화·기계화를 위한 '표준 어선형'을 개발해 원양어선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원양어선 노후화에 대응해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확대해 원양어선의 신조와 대체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금융 등을 활용한 업종별 원양어선 대체건조 방안도 확보할 계획이다.

〈② 어장확보 협력〉 정부개발원조(ODA) 연계 강화, 철수어장 복원)

연안국 정부개발원조(ODA)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해외에서 원양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어촌뉴딜 사업의 성과를 수원 국에도 이식해 주요 조업국인 남태평양 도서국에 주민들의 필수 생활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우리 원양어선의 조업 쿼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선착장 개선, 어촌·어항 현대화 등 수산·관광산업 활성화 추진(1개소, 3년 사업, 20억원, 총 60억원) 검토

아울러, 현지합작 조업유통가공 지원 및 민관 합동 해외자원조사 등을 통해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채낚기 어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신규 오징어 어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③ 규범 대응〉 전자모니터링 도입을 통한 관리 강화, 어획인증 확대)

읍서버 승선율이 낮은 업종의 경우 불법·비규제·비보고(IUU) 어업 감시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국제기구에서 도입을 논의 중인 전자 모니터링(EM)을 단계별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어획인증(MSC)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④ 고부가가치〉 간편식 제품 개발 지원 및 원양 전략품목 육성)

원양업계에 간편식을 비롯한 다양한 수산식품 제품 개발과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수산 가공시설 등 인프라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수출 상품 개발·생산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양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 원양 수산물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와 마케팅 부문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랑어류, 이빨고기, 오징어를 전략품목으로 지정해 품목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다랑어류) ①고부가가치 간편식 개발, 마케팅 지원, ②가공업계의 수산식품클러스터 활용 지원 (이빨고기) 고부가가치 간편식 개발 지원 (오징어) 가공용 오징어 어장 확보 및 연근해 살오징어 대체 어장진출 지원

〈⑤ 선원육성〉 선원 인력 양성 및 복지 개선, 홍보 강화)

격년제로 운영되는 오션폴리텍 원양어선 해기사 교육 과정을 매년 운영으로 확대해 원양어선에 안정적으로 선원인력이 승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산계 고등학생을 원양어선 해기사로 양성하기 위해 장학금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선상에서의 인터넷 사용, 해상근무 중간 휴식기 도입 등을 통해 선원들의 복지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오징어고등어갈치 등 대중성어종 최대 반값에 판매 9. 13.부터 대중성어종 30% 할인하는 어(魚)싸다 특가 행사 추진

해양수산부는 추석 성수기에 소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물가 체감도를 낮추기 위해 추석 일주일 전부터 대중성어종 6종(오징어, 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 마른멸치)에 대한 할인을 30%로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9월 1일(수)부터 9월 22일(수)까지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 중이며, 행사 대상 수산물은 추석 대표 성수품 및 소비촉진 필요품목 10종(오징어, 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 마른멸치, 참돔, 전복, 미역, 새우)이다.

이 중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대중성어종 6종(오징어, 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 마른멸치)에 대해서는 추석 성수기인 9월 13일부터 22일까지(10일간) 할인을 20%에서 30%로 대폭 상향하여 지원하며, 추가로 업체별 자체 할인이 더해져 최대 70%까지 할인된다. 추석 행사 기간 동안 1인 할인 한도 또한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참여업체는 대형마트 8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GS리테일, 메가마트, 서원유통, 수협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15개사(11번가, 쿠팡, 키링,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베이코리아, 수협쇼핑,

위메프, 오아시스, SSG.com, CJ ENM, 더파이어츠, GS홈쇼핑, 롯데온, 인터파크, 꽃피는아침마을), 생협 4개사(한살림, 아이쿱, 두레, 행복중심 생협), 수산 창업기업 4개사(암테이블, 삼삼해물, 풍어영어조합법인, 바다드림)이다.

한편, 전국 25개 시장(전통시장 22개, 도매시장 3개)은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부스 행사를 추진한다. 추석 대목을 맞이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한도도 2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App,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운영)을 통해서도 1인당 월 최대 4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로페이 앱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며, 최대 20만 원의 상품권 구매 시 4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수산매장(11,754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놀러와요 시장'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전국 75개 전통시장(3,331개 점포)에서 온라인으로 장보기를 할 수 있으며, 2시간 내 배달도 받을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 선박복원성 집중점검 실시

- 9. 1.~11. 30. 3개월간 시행, 해당 지역 입항 국적선은 사전에 대비해야 -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 지역의 항만국통제 협의회 48개 회원국이 9월 1일(수)부터 11월 30일(화)까지 3개월간 공동으로 선박복원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복원성 자료 및 기기의 승인, 책임사관의 복원성자료 활용가능 여부 등이 주로 점검될 예정이며, 점검 결과 국제협약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선박의 출항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정부예산안에 해양수산분야 6조 3,365억 원

해양수산부, 어촌소멸 대응과 탄소중립에 중점 투자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정부예산안(기금 포함)에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6조 3,365억 원을 편성했다. 2021년도 본예산 6조 1,628억 원보다 1,737억 원(2.8%)이 증액되었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 2조 8,005억 원(2021년 대비 4.7%↑), 해운·항만 부문 2조 74억 원(2021년 대비 4.9%↓), 해양환경 부문 1조 2,834억 원(2021년 대비 9.7%↑), 연구개발(R&D) 예산 8,262억 원(2021년 대비 5.6%↑)을 편성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기획재정부 소관, 2.5조원 규모)에도 해양수산 분야 302억 원(6개 사업)을 편성했다.

해수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①어촌소멸 대응 및 연안경제 활성화, ②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감축 본격 추진, ③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 강화, ④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어촌소멸 대응 : 6,479억 원(2.0% 증액)〉

먼저 포스트 어촌뉴딜 이행을 위함 시범사업으로 어촌활력증진사업 신규 추진과 기존 어촌뉴딜 300사업 신규 50개소 선정을 통해 어촌 활력 제고를 지원한다. 또한, 수산공익직불제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어업인에 대한 특화검진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어업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일부지원 및 복지회관 확충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실현 : 4,562억 원(36% 증액)〉

관공선 28척을 LNG·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하고, 선령 10년 이하 관공선 30척에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등 공공부문 친환경선박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 외항선·내항선 등에 친환경 선박 보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암모

니아 선박 기술개발을 위한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개발'과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 등 관련 친환경 기술개발(R&D)도 착수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 932억 원(12.7% 증액)〉

오염수 국내유입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해역(동남해, 제주)의 조사정점을 확대하는 등 연안해역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수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의 주요 관문인 위판장에 방사능 검사장비 지원(10개소) 및 국민청원 방사능 검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33억 원, 신규)를 강화하고, 앱을 활용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감시 강화(5억 5,000만 원)와 함께 국내 수산물 생산이력정보 관리 강화를 위해 수협위판정보시스템과 이력제 시스템을 연계(4.8억 원)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물 소비위축 가능성 등에 대비해 비축여력을 확대(708→757억 원)해 가격급락 방지 등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 1,971억 원(64.6% 증액)〉

해양·수산 모태펀드 출자 확대, 신기술 사업화 지원, 창업투자지원센터 확대 등 중소·벤처기업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부산)·'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서천) 등 신산업 인프라 기반 구축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수산업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위해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지속 조성하고,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유통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수산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 바우처, 비대면 유통시장 진출 등을 위한 마케팅 지원, 한류 연계 K브랜드 확산 지원 등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확대한다.



추석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9. 6. 부터 2주간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6일(월)부터 17일(금)까지 2주간 2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과, 수입량이 증가한 참돔, 가리비 등을 포함해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멧게, 홍어, 낙지, 뱀장어 등이다.

점검 대상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다. 특히 참돔, 가리

비, 멧게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총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 제외

해양수산부는 수산·어촌 전문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를 담은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이 8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기존에 수행하던 어촌·어항개발, 어장재생 등의 업무와 더불어 신규 사업인 친환경·스마트 수산업 지원육성,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민간투자 활성화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산어촌공단이 신규사업을 원활히 추

진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출자, 자금의 차입, 수수료의 징수근거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입법예고안에 한국수산어촌공단의 신규사업으로 포함되었던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는 이번 제정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어업분야 인력부족 현상완화는 물론 외국인 어선원 관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전무	최경삼	589-1602	경영지원본부장
상무	신현애	589-1603	해외협력본부장
비서(주임)	조한솔	589-1601	비서, 출납업무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강성현 부장 589-1604	총괄
		박설진 차장 589-1605	회계경리, 운영예산
		조성환 과장 589-1606	사무관리, 차량운영
	기획홍보부	이성재 이사 589-1607	총괄
		공길웅 과장 589-1608	기획자금, 생산통계
		김영수 과장 589-1609	홍보
		김민재 사원 589-1620	기획홍보지원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 589-1610	총괄
		김효상 과장 589-1611	무역제도, 수출통계
최상진 사원 589-1619		노사, 선원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신현애 상무 589-1612	총괄(겸직)
		최봉준 과장 589-1613	국제협력
		백상진 주임 589-1614	참치선망
	해외협력 2부	김태호 사원 589-1615	참치연승
		진호정 부장 589-1616	총괄
		조성주 과장 589-1617	복양, 품치
부산지부	-	(051)	총괄
		253-3388	확인업무(수출, 반입등)
	공인계량소	이영두 팀장 051)	차량계량
		이동주 팀장 253-3391	차량계량

부서	센터장실	권현욱 센터장	044-868-7360	협력센터 총괄	국제협상지원팀	원태훈 전문관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기구
해외수산협력센터(세종)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장 044-868-7834	행정총괄, 명예수산관	OFIS, 해외투자, 행정	김수민 전문관 044-868-7832	김선경 전문관 044-868-7833	044-868-7836	일반/지역수산기구 對 일본 업무
		이원영 행정관 044-868-7837						
	국제협상지원팀	양재결 전문관 044-868-7364	일반/지역수산기구	서규혁 행정관 044-868-7836	윤유정 행정관 044-868-7838	ODA 통계, 협의회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협력센터) :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관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679-330-7188 ckpfj@naver.com
페루	이호상	51-1-454-6394 asia@asiamaritima.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62-21-8660-6278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운홍	233-22-300772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64-3-344-1617 seajho@xtra.co.nz
미얀마	변경대	95-92-6204-1339 kevinbyun61@naver.com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675-321-8137 jc651016@gmail.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남아공	조창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37호

발행 : 2021년 9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발행처 특수 **한국원양산업협회**
 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건강한 주부는 원양산 생선을 좋아해~



【원양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 원양산은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양망)」으로 표시하므로 '원양산'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례 : 원양산 또는 원양산(대서양)>

홍조림용 참치조림 장면

원양생선은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즉시 선상에서 위생적으로 냉동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참 치 회 DHA, EPA, 셀레늄이 풍부
--	-----------------------------------

	참치통조림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	------------------------------

	오징어 피로회복 성분, 타우린 다량 함유
--	----------------------------------

	명 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
--	---------------------------

	조기류(민어과) 저수용 생선으로 저칼
--	--------------------------------

	공 치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	----------------------------

원양산 생선을 수입산과 동격 취급 마세요!

원양산 생선이 수입산보다 왜 좋을까?

- 01 내국물품 (우리 어선이 잡은 생선)**
원양산은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원양 수역이나 해외 공해상에서 잡아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연근해산과 마찬가지로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산은 외국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 02 오염우려 없는 친환경 생선**
원양산은 대부분 청정해역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대양에서 안전한 위생 기준(HACCP)에 의해 생산되어 식품안전성이 수입산과 달리 뛰어나다.
- 03 선상급랭 시설을 통한 우수한 신선도 관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선상급랭 시설이 매우 우수해 어획 즉시 선상에서 곧바로 급랭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훨씬 뛰어나다.